다. 출연자 섭외

1. 오디션(혹은 참가자 섭외) - 교내 출연자

일반 학우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자랑 형식 이라면 오디션을, 동아리를 중심으로 하는 무대라면 동아리 섭외를 통해 참가자를 마무리 하도록 한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한다면 이를 공정하게 선발할 수 있는 기준과 심사위원 (학생회, 일반 학생과 교사의 적정비율)을 두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 찬조 공연팀 섭외

우리 학교 학생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혹은 공연의 분위기를 더욱 살리고 싶다면, 우리학교에서는 볼 수 없는 공연을 보고자 한다면 찬조팀을 섭외할 수 있다. 주변학교의 유명한 동아리나 학생들을 미리 알아두었다가 우리학교 참가자, 사회자가 확정한 후에 섭외하는 것이 좋다. 최대한 우리 학교 학생들의 공연과 겹치지 않게 섭외를 시도한다.

3. 공연 출연자 및 찬조팀 관리

공연을 앞두고 출연자와 찬조팀들을 점검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 갑자기 정해진 순서의 출연자가 사정이 있어 참여하지 못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를 꼼꼼히 체크해야한다. 실제로 공연 당일에도 종종 발생하기도 하여 학생회를 당황하게 하는데 이런 돌발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화나 직접만남을 통해 그런 일에 대한 주의를 주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서 공연 출연자 및 찬조팀을 관리하는 담당자를 세워야 한다. 모든 학생회 임원들이 준비하기 어려우므로 연락하고 일정을 공유하는 한 사람이 공연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책임져야한다. 담당자는 공연 준비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기도 하고 일정이 바뀌거나 돌발상황에 주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라. 사회자에 대하여

1. 사회자 섭외(혹은 공개 오디션)

대게 학교의 축제에서는 학생회장이 사회를 전담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회장이 꼭 사회를 봐야한다는 원칙은 없으므로, 학교에서 끼와 재치가 넘치는 학생을 출연자와 마찬가지로 사회자를 오디션을 통해 뽑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 사회자 오디션 평가표 >

이름	조리성	표정	목소리	오버징도	재치	태도	순발력 (돌발상황)	합계

= 각 항목당 점수 - 10 점씩 배점.
= 총점 70점 만점.
= 순발력점수는 돌발상황 테스트에서 채점하고 나머지 항목은 기본대본 본만 이니
리 돌발상황
테스트 시에도 점수 적용 가능.
= 사회자는 남자 1명, 여자 2명.
= 기본점수 없음.

<참고 3> 과천고 사회자 오디션 평가표

2. 사회자 멘트

사회자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끼가 넘친다 하더라도 애드립으로 몇 백 명 앞에서 진행하기에는 당연히 역부족이고, 실수가 있기 마련이다. 이 또한 공연의 완성도를 위해서 사회자의 멘트가 각 순서의 의도에 맞게, 기승전결의 흐름으로 공연을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도록 멘트를 작성하게 한다. 공연이 아무리 훌륭해도 이를 소개하고 이끌어나가는 사회자가 어수선하거나 더듬거나 하게 되면 만족할 만한 공연이 될 수 없다. 반드시 공연 전에 작성하도록 하며, 이러한 멘트를 마치 방송진행자처럼 각 순서별로 작은 종이를 마련하여 준비된 모습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참고4〉 사회자 멘트의 예 – 동명여고 공연 "영파워 가슴을 열어라" 멘트

(두구두구두구~) 조명!
은, 정: 자금부터 제 14회 싸리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은: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개막식 사회를 맡게 된 최은희,

정: 황정원입니다. 붉게 물들어 가는 단풍의 아름다움과 익어가는 곡식의 풍성함이 있는 가을입니다. 이렇게 화창한(풍요로운) 가을 날 우리 모두의 희망과 기쁨이 될 축제의 첫 순서 사회를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은: 이번 싸리제는 순수한 열정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선생님들과 동아리 친구들의 노력이 한층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름다운 교정과 넘치는 끼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게 되어 기쁩니다.

정: 네, 어렵게 이루어진 개방인 만큼 우리의 성숙한 질서의식과 나눔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니, 오늘의 첫 순서는 뭐죠?

은: 여러분 가슴 속 깊이 깊이 묻어둔 재미있고 웃기고 감동적인 모든 이야기들이 공개됩니다. 이름하여 **"영파워 가슴을 열어래!!!"**

정: 그럼, 첫 번째 참가자 모실까요?

은: 이분은 외모부터 예사롭지 않으신데요..?과연 어떤 사연을 들고 나오셨는지 1학년 14반 최슬기양 나와주세요~

(중략)

정: 마지막으로 1등상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은: 정원양 1등상은 좀 특별하다고 하던데여...?

정: 네. 이 상은 교장 선생님이 손수 준비해 주신 정말 뜻 깊은 상입니다.

은: 아. 그렇군요. 그럼 교장 선생님의 정성이 깃든 이 선물을 받게 될 친구를 발표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정: 여러분, 아쉽지만 가슴을 열어라 행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 각 동아리들에서는 공연과 전시를 위해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각종 이벤트와 게임도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정: 축제 기간 동안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구요. 힘든 학교 생활에 부드러운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싸리제가 되길 바랍니다.
은: 지금까지 최은희, 황정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5〉 MC 김제동이 말하는 진행 노하우

김제동(29)은 말의 힘을 알고 있다. 딱히 미안한 일이 없어도 '죄송합니다', 이쪽에서 별로 해준 게 없어도 '감사합니다'라고 말해 호감을 준다. 그는 무대 위에서 관객과 호흡하며 분위기를 이끄는 '이벤트 MC'다. 대구에서 다양한 MC 활동을 하다가 지난해 봄 KBS2 '윤도현의 러브레터'(토 밤 12·40)로 방송에 데뷔한 뒤 KBS2 '폭소클럽' 등에서 입담을 과시하고 있다.

"노하우를 전수해 달라"고 했더니 그는 "남을 웃기는 방법은 두 가지, 자기를 낮추거나 남을 깎아내리는 것"이라고 했다. '모두 이쁘고 잘 생겼네요'라고 하면 재미없죠. 남을 깎아내릴 때는 사회에서 용인되는 수준을 감안해야 하는데 우선 '욕설'은 쓰지 말아야 해요. 야외행사는 방송보다 말을 좀더 '심하게' 할 수 있는 등 무대에 따라 기준이 달라요."

▽**외모로 웃음 만들기** = 속사포 같은 김제동의 말은 재미를 주면서도 때로는 공격적으로 비친다. 김제동도 출연자와 말을 주고받는 것을 '공격'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외모 등 민감한 소재를 다룰 때도 항상 호의적인 분위기로 끝맺어야 하는 게 건강한 웃음의 비결이다.

"'얼굴이 왜 이렇게 생겼어요?' 하면 누가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대신 '자세히 보니까 저하고 좀 닮으신 것 같네요' 하면 상대도 '재미있게 화를 냅니다. '아니 제가 뭐가요?' 하면서. 그럼 분위기 좋잖아요."

▽**외모 수준에 따른 대응** = 아주 잘 생긴 사람이 나오면 동료 MC나 출연자까지 동원해 그 사람을 '공격'한다. 관객들도 잘 생긴 출연자가 '당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 "하지만 끝의 반전이 중요해요. '여자들이 많이 따르죠? 우린 그게 소원이야. 이 사람아' 하면서." 얼굴이 정말 못생겼을 경우에는 외모로 놀려서는 안 되며 이에 무대로 부르지 않는 게 좋다. 또 여성의 경우 외모가 괜찮을 경우에만 하는 것이 안전하다.

▽**소극적이고 말없는 상대방** = 이런 사람일수록 상처받지 않게 신경 쓰면서 숨어있는 끼를 발휘하도록 '띄워줘야' 한다. "'야, 정말 암전하시군요 여러분, 이런 분과 결혼하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상대는 살짝살짝 웃다가 한 마디씩 걸작을 내뱉을 때가 많다.

▽**여르신 웃기기** = 김제동은 MBC '까치가 울면'(일 오전 8:50)에 나오는 노인들과도 편하게 대화를 주고받는다. "아버님 건강하시죠?' 이렇게 말하면 예의바르지만 그분들도 경직돼요. 처리리 버릇없지만 귀여운 손자처럼 '아이, 왜 이러세요' '아버지!' 노래 잘못 됐네' 하면서 자연스러워야 해요."

▽**최고의 농담은 '자기비하'** = '포스클럽'에서 개그맨 김인석과 정형돈이 김제동의 작은 눈을 가리켜 'A4 용지에 베인 자국 같다'고 했다. 그러나 김제동은 자신의 코너 '연애특강'에서 이 말을 그대로 다시 썼다. 어쩌다 출연자가 언짢은 표정이면 "기분 안 나쁘셨죠? 저도 이렇게 생겼는데요 뭘…"이라고 다독인다.

▽**산문 속에 웃음 있다** = 그는 산문 스크랩 등을 통해 소재를 찾는다. 분야를 가리지 않고 산문을 보며 웃음 소재가 될 만한 부분에 밑줄을 긋거나 아이디어를 메모해두기도 한다.

마. 공연순서 및 콘티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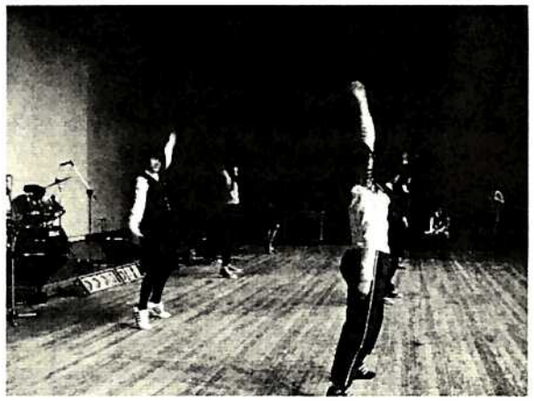
참가자와 촬조 팀의 공연 순서, 사회자 출현 빈도, 적절한 이벤트를 가미하여 지루하거나 비슷한 성격의 공연끼리 겹치지 않도록 순서를 조율한다. 이런 순서를 결정 지었다면 이를 원만하게 방송사고(?)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콘티를 작성해야 한다. 사회자 발언의 시간, 각 참가자 공연 시간등까지 꼼꼼하게 작성하고, 등퇴장시의 음악, 조명, 영상등이 언제 나오는지를 콘티에 다 적어놓는다. 이렇게 하지 않고 느슨하게 짜게 되면 돌발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최대한 줄이는 의미에서 콘티를 꼭 작성하도록 한다. (참고6을 참조)

<참고 6>
과천고
공연콘티

번호	이름	시간	내용	조명	도구	음향	특효	무대	people
	관객입장	20	•계단식스탠드 미리 설치 • 스크린 내려와 있음 입장	무대 암전 객석 환하게		bgm			
	객석정돈	1		암전					
1	animation 오프닝	3	프로젝터로animation상영	암전	프로젝터			스크린	정지영
2	합창	8	1. oh, happy day 2. 눈 오는 밤	환하게	계단식스탠드,피아노,기타(의자)	첸장2,무선3,유선1(기타)			아마빌레30명,반주김혜명(각 파트 솔로2명씩,기타)
	mc등장	2	사회자오프닝멘트(멘트 후 아마빌레 소개, 에니매이션 소개, 교장,회장 소개)	사회자석pin	미니단상	유선2,무선1			강태욱,천소정,황지현
3	교장,회장 인사	5	교장선생님,학생회장 인사	pinshot인물따라옴(그외 암전)		무선1(회장)			교장선생님,감원국
4	방송제	13	프로젝터로 비디오 상영	암전	프로젝터				KEBS
5	수화노래	5	1.우리사랑이대로 2.로보트태권브이 •덧마루철거	환한조명,2번곡화려하게	계단식스탠드	tape 무선2(노래)		끝남과동시에스크린下	수화씨클20,박효정,민인영
	중간반주	1	without you		bnd set			끝남과동시에모형막下	라이머
•6	개그콘서트	12	•세부시나리오참조					난타끝나고1번막下 꽁트소개후1번막上	혼수상태
7	락밴드공연	10	1.그대에게 2.시대유감 3.Smells like Teen spirit	싸이키	bnd set		FOG		아데나7명(보컬2,기타2)

바. 리허설과 당일 공연 준비

1. 리허설



행사 당일 혹은 2,3일 전에는 반드시 리허설을 진행해야 한다. 아무리 콘티를 잘 짜고 사회자 멘트가 착실하다해도 당일에는 분명히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한다. 특히 대부분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 중 가장 빈번한 것이 영상등의 기기 때문인 경우가 많은데, 이를 반드시 미리 체크하는 의미로 출연자의 등퇴장과 함께 미리 꼭 점검해야 한다. 리허설은 실제 공연처럼 미리 작성한 콘티를 중심으로 진행해야 하며, 시간상의 문제가 있다면 약식으로 진행하더라도 모든 출연자가 한번씩은 무대에 오르는 것이 정석이다. 만약 이를 해보지 않은 출연자는 당일 공연때 반드시 느릿하게 굴어 흐름을 끊거나 실수를 범하게 되므로 이를 주의한다. '리허설을 하지 않으면 분명히 빵꾸난다.' 이는 명언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2. 당일 공연

당일 공연날에는 모든 학생회나 진행요원들이 자기가 맡은 역할이나 자리를 지켜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인원이 관람하러 오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진행요원들이 우왕좌왕하거나 정신없어 하는 일을 방지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공연시작 전에 진행요원들을 모아놓고 각자의 역할과 자리 배치를 확인하고 예측되는 돌발상황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여야 그나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여태까지 열심히 준비한 공연 무대를 한순간의 방심으로 무너뜨릴 수는 없는법. 관람객의 입장에서부터 최종 정리까지 긴장을 놓지 말도록 하자. (돌발상황에 대해서는 참고 7, 8을 참조)

사. 그 외 준비 및 당일 공연 진행시 신경써야 할 것들

위의 여섯 가지 정도의 준비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그 이외에도 어떤 것들을 신경써야 할지,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축제를 할 수 있을지 몇 가지 정도로 정리해보았다.

1. 같은 장르 반복해서 배치말고 다양하게 섞어서 배치한다.

보통 공연을 하면 자신의 가창력을 자랑하기 위해 발라드를 선택한다. 성시경, 조성모 등 1,2 곡을 들을 때는 기분이 좋다. 그러나 줄기차게 발라는 10곡을 한다고 상상해보자. 4, 5곡이 넘어갈 때 쯤이면 윽! 앉아서 듣는 사람도 생각해보자. 지루한 가요제, 하품 나는 가요제는 이제 그만 다양하고 댄스, 랩, 락, 풍물 등등 신나는 공연을 만들자.

2. 그 학교의 명물이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수학여행 때 장기자랑하면 각 학교에 숨어있는 인재들이 속속들이 발견된다. ㅅ고에서는 하리수, ㅈ고에서는 싸이가 있다. 우리학교에도 넘치는 끼와 입소문이 난 학교 명물을 찾아 가요제를 빛나게 만들자.

3. 전체 기획판을 잘 파악하고 재미있는 사회자가 필요하다!

사회자는 준비된 멘트를 일방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므로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 수 있는 친구를 섭외 또는 공개 오디션을 통해 모집한다.

4. 출연자의 곡 선정은 모두가 알고 있는 곡들로 선정해야 한다.

다른 학교에 밴드팀을 섭외할 때는 꼭 누구나 다 알고 호응이 있을만한 인기곡으로 선정해 주어야한다. 보통 밴드팀들이 학교축제 때 부르는 노래는 자신들만 아는 전문적인 노래들이 많다. 너바나 같은 노래들을 강당공연 구경온 친구들이 몇 명이나 알겠는가? 이런 노래를 기본 3곡 열창을 하면 아이들은 강당을 나가고 싶어한다. 다함께 호응할 수 있는 노래, 다함께 부를 수 있고 함께 뛸 수 있는 노래를 하생회가 섭외할 때 선곡해주자.

5. 다양한 영상 자료를 이용해 보자. (축제 cf 패러디, 연예인 축전 등)

요즘 청소년들은 영상을 통해 받는 자극이 강하다. 노래, 댄스 연달아 나오는 공연에서 객석이 꺼지며 나오는 영상은 신선한 느낌을 줄 것이며, 분위기를 확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순서이다.

6.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꼭지를 기획해보자.

관객들은 2-3시간 동안 앉아있기만 한다. 그러다가 지루해지면, 나가버리고 공연장은 안정

되지 않고 계속 산만해진다. 지루해질만 하면 모두가 집중할 수 있도록 관객에게 내는 퀴즈, 즉석 노래자랑 코너, 공연장 내에 각 프로그램의 호응도를 설문조사하는 등의 것을 배치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7. 체크!! 강당이나 야외무대 엠프와, 에어컨 등을 점검하자!!

2003년 중앙고등학교에서 공연을 할 때 무대를 관람했던 사람들이 공연을 잠깐 보다가 나가는 일이 빈번하게 있었다. 왜냐하면 뜨거운 여름에, 무대도 조명과 음악소리로 뜨거운데 에어컨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다. 또 어떤 학교에서는 강당 공연 시에 엠프 소리가 작아서 사회가 말하는 것,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데 가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아마 이런 공연을 보는 사람은 누구라도 답답할 것이다. 학생회여! 마지막으로 엠프, 에어컨 등등 공연 주위 환경을 꼭 점검해야 한다!!

(2) 제안 : 새로운 공연 문화를 위하여

가. 성공하는 공연에는 이유가 있다.

길을 가다 갑자기 꼬치오뎅이 먹고 싶어 분식 포장마차를 찾는다. 두 집이 나란히 붙어있는 곳에 들어섰다. 파는 것들도 모두 같고, 가격도 같다. 잠시 고민한다. 어디라도 상관없지만, 이왕이면 잘 먹을 수 있었음 하는 바램. 그럼 나는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답은 간단하다. 사람이 많은 곳. 사람이 몰리는 곳에는 이유가 있고, 사람이 몰리지 않는 것에도 반드시 이유가 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몰리거나 그렇지 않는 축제, 공연에도 그 이유는 반드시 있다.

축제 때 공연을 하는 학교가 참 많지만, 재미있는 공연을 만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대부분의 학교의 공연을 보고 있노라면 왜 그렇게 학생들이 왔다갔다 하는지, 그것 때문에 정신이 없다. 왜 그럴까? 학생들이 수시로 들락날락 거리는 것은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그랬을 수도 있으나, 대부분 공연장의 정신없음은 그 공연이 관객을 집중시키지 못한 것에 가장 큰 이유가 있다. 집중을 시키지 못하는 것은 왜 일까? 그건 다양한 각도에서 답을 찾아야 하겠지만, (전

반적으로 준비가 미흡했거나, 출연자의 공연내용이 특출나지 않거나 하는 등) 결국 사람들을 주목을 끌어들이기에 부족함이 있고 그 공연의 수준이 낮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을 집중시키는 공연, 사람을 미치게 하는 공연, 사람을 감동시키는 공연, 이런 수준을 높은 공연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공연의 형식과 진행에서의 프로정신이고, 두 번째는 비단 출연자, 사회자, 스텝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하는 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내용, 주제가 있는 공연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에 대한 것은 이미 앞부분에서 설명했다. 이번 장에서 제안할 중요한 내용은 바로 두 번째, 주제와 내용이 있는 공연 만들기이다.

나. 제안_주제와 내용이 있는 공연 만들기

위의 프로정신에 맞게 올해 공연을 준비한다면, 그것 자체로도 수준이 높아진다. 그러나 이렇게 충실히 준비하고 진행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만족할 수 있나. 그렇다.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무언가가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다. 우리가 축제를 하는 목적이 놀아보자는 것에도 있지만, 놀기 위해 축제가 태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무언가 축제라는 것에는 의미가 있고, 애초부터 축제판 안에서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이 있지는 않았을까?

축제는 학생회나 동아리만의 것, 혹은 공연 출연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어야 한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학생 우리 자신을 위한 축제.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축제다. 학생들의 삶과 동떨어진, '보여주는' 축제가 아니라 '함께 하는' 축제로 거듭나야 한다. 물론 축제를 통해서 그간의 스트레스를 풀고 열심히 노는 것은 중요하다. 이것이 필요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놀더라도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심신을 풀겠다면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공연이라는 집중된 자리에서는 어떤가. 노래, 댄스 다양한 공연들이 펼쳐지고 신나고 즐거운 분위기가 연출되지만, 구경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무대 위의 출연자들을 지켜보는 것 외에 다른 할일은 없다. 그렇지만 공연에서 이 자리에 모여있는 학생들을 위한 내용을 담아준다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희망을 주는 공연으로 나아간다면, 비록 관람하는 입장이지만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의미를 더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와 내용을 담은 공연, 우리가 올해 이를 도전해보자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여기서 이야기 하는 주제와 내용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과 애환, 우리의 목소리' 이다. 이런 학생들의 삶과 밀접한 것들을 공연에 담고 관객에

게 이야기를 던졌을 때 그것이 나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라면 관객은 그것 자체로 감동을 받을 수 있고, 더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관객과 호흡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우리의 삶과 애환, 우리의 목소리' 를 공연에 담아보자. 철저한 프로정신 공연이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화려하게 치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관객, 즉 학생들과 공감하는,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 내용으로 함께 하는 것이다.

다. 올해 공연 이렇게 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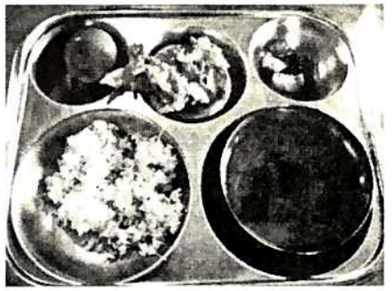
공연에 의미있는 내용을 담는 것이 쉽지는 않다. 이런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무엇을 어떻게 담을지 막막해 지기도 한다. 또한 이미 공연판이 짜여진 곳은 아무래도 쉽게 손을 대기 어려운 상황. 그리고 여러 출연자들의 공연 자체에 완성도를 높이며 가는 것도 만만찮기 때문에 그 이외에 다른 것을 신경쓰기도 어려운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전체 판을 바꾸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 내용들을 관객들에게 전달 할 수 있는, 또 그다지 많은걸 힘들여 준비하지 않더라도 관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신나고 즐거운 한판의 공연들 속, 뭔가 학생들의 마음속에 남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학생회가 기획하여 올해 시도해보자. 만약 이것을 도전하고 실행에 옮긴다면 이는 대학교 축제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새로운 시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1. 우선 무슨 내용을 줄 것인가?

이는 당연히 학생들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건의사항)등을 중심으로 내용을 짜면 그들의 삶에 가장 가깝고 진정 바라는 것이므로 학생들의 호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두발, 급식, 학교 시설 관련, 그 외 학교에서 회자되는 학생들의 이야기등을 주제로 하는 것이다. 실제로 신월중학교에서는

시험에 지치는 학생들의 심정, 두발 자유, 학교 화장실 휴지 없는 학생들과 밀접한 주제들을 꽁트형식으로 영상을 제작하여 축제때 상영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런 공연의 성과로 이후 신월중학교 화장실에서 휴지를 볼 수 있게 되었다는 흐뭇한 소식도 들려왔다. 그것이 건의사항이 됐든, 그 어떤 것이든 학생들이 원하는 것, 그들의 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뽑아냄으로써 우리 학교 축제가 진정 학생들을 위한 것임을 과시해보자.

2. 이런 내용을 어디에 어떻게 넣을 수 있나?



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매년 해오던 공연판 전반을 뒤집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축제 전반의 내용 자체가 그렇게 되는 것 만큼 좋은 것은 없겠지만, 쉽지많은 않은 것이 현실. 그렇다면 여러 공연 중 한 꼭지라도 시도해보는 것은 어떨까? 공연 순서 중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넣어 이를 학생회가 진행해보자. 중간에 쉬어가는 코너로 활용하든지, 우리들의 이야기 코너로 활용하든지 공연 진행상 어색하지 않게 배치해놓아야 한다. 또한 전체 공연 자체가 떠들썩하고 신나고 유쾌한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만큼 이런 내용 또한 이에 부합되도록 재미있고 톡톡 튀는 형식으로 기획해보자.

3. 어떤 형식으로 접근해 볼 수 있나?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여기에서 소개 하는 것들은 그동안 학생회가 무대나 활동등을 통해 많이 해오던 것들이므로 이를 참고하여 자신의 학교에 맞겠다 싶은 것으로 기획해보면 좋겠다. 이 이외에도 학교별로 창조적인 것을 많이 만들어내길 바란다.

■ 패러디 CF : 유명 CF를 패러디하여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풍자해보는 것이 좋다. 최근 많은 학교에서 이와 같은 것을 축제 홍보 용도로 제작하곤 하는데, 이를 활용해보자. 학생들이 영상을 통해 집중될 수 있고, 또한 자신이 알고 있던 유명 CF들이 학생 배우들의 어색함과 대비되면서 무한한 재미를 줄 수 있어 많은 호응을 불러 일으키는 검증된 형식이기도 하다. 문제

가 있다면 이는 촬영과 편집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촬영이야 할 수 있겠지만, 편집기술은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이와 관련한 도움은 '희망' 선생님들에 요청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 꽁트 : 축제 때 보다는 다른 행사 (학생의날, 스승의날등)에서 시도하는 것들인데, 이를 축제때 고스란히 옮겨 보자. TV에서 보이는 개그콘서트나 웃찾사등을 패러디 하거나 창작하여 무대에 직접 올라가 연기를 펼쳐보인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NG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생방송(?)이다보니 실수를 하게 되면 분위기가 안좋아지고 늘어지게 되니 이에 대한 사전 연습을 충분히 해야 성공할 수 있다.

■ 가슴을 열어라 : 일명 '가슴을 열어라' 형식의 자유발언대를 진행해보는 것은 어떨지. 이는 진짜 학생들에게 열려진 장이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실제로 상계제일중학교는 이를 진행하여 이성친구의 고백,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 공부 못해서 열심히 해보겠다는 결심까지 다양한 주제로 학생들이 직접 나와 이야기를 하였고, 호응도 좋았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 내는가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공연 시작 전에 홍보를 하여 미리 출연자를 선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올라와서 발언을 하면 상품을 준다던가, 이예 몇 명을 찍어 준비시켜 놓는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

라. 정리_학생들을 위한 공연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사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면 속편하고 몸도 편하다. 그렇지만 이왕에 하는 거 우리가 보여주기식 축제를 할 바에야 '진짜 축제'를 만들어봐야 하지 않겠나. 특히 공연이라는 집중된 공간은 위의 내용을 표현하기에 안성맞춤인 곳. 올해 2005년에는 모두에게 기억이 남는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학생회가 학우들 속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공연을 만들게 되길 간절히 바란다.

[이벤트]

(1) 축제 이벤트란

① 동아리, 학생회에 속하지 않은 학생들이 축제를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축제준비기간 동안 여러 동아리와 학생회 친구들은 바쁘다. 하지만 동아리에 속하지 않은 학생들은 축제기간이 언제인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등 준비과정에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벤트를 진행할 자봉단을 모집하여 동아리, 학생회만의 축제가 아닌 모두가 함께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축제를 만들어보자.

② 축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동아리가 몇 달 전부터 준비하고 계획한 전시물이나 각종 공연들은 학생들이 일방적으로 듣고, 보는 것 이상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은 부분 제공할 수 없다. 각종 이벤트를 통해 직접 체험해보고 참여하며 느끼는 즐거움을 제공하자.

③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열심히 준비한 축제에 학생들의 참여율이 낮다면 이보다 괴로운 일이 없을 것이다. 이제는 학생들의 낮은 참여율을 보며 한숨 쉬지 말고 참신하고 톡톡 튀는 이벤트, 너도나도 해보고 싶은 재미난 이벤트를 통해 참여율을 높여보자.

(2) 성공적인 이벤트 진행을 위한 제언

가. 사전준비

1. 축제이벤트를 진행할 도우미를 모집 한다

할일이 많아 일을 덜기위한 도우미 모집이 아니라 축제 과정을 더 많은 학생들과 함께 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최대한 많은 학생들을 도우미로 모집하자.
예) 축제도우미 홍보영상제작, 공지게시판에 공고, 반 홍보, 도우미들에게 봉사시간제공

2. 도우미들과 단합을 이룬다

축제도우미는 축제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도우미들이 얼만큼의 열의를 내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축제의 질과 양이 달라진다. 단순한 실무만하는 하게 된다거나 힘들고 어려운 일만을 하게 된다면 다음 년에는 아무도 도우미를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도우미의 위상을 높이고 함께 고민하고 계획하고 만들어나가는 역할을 주어야 한다. 도우미는 궂은 일만하는 역할이 아닌 학생회와 함께 축제 전반상황을 장악하고 준비하여 만들어 나아가는 제2의 학생회라는 인지와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주인 된 마음으로 축제성공을 위해 열심히 해보자는 진심어린 마음의 통함이 필요하다.
- 도우미의 역할과 자세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 공통 된 단체티를 맞춘다.
- 도우미와 함께 하는 확대회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3. 계획, 제작, 진행 3단계를 함께 한다

내 머리로 계획하고 직접 만든 이벤트는 내가 가장 잘 알기 마련이다. 축제 당일날 진행 될 이벤트 종류들을 미리 정하고 진행 할 책임까지를 맡아보자. 이벤트제작부터 진행방법을 책임지고 진행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나. 유의사항

1. 완벽한 준비를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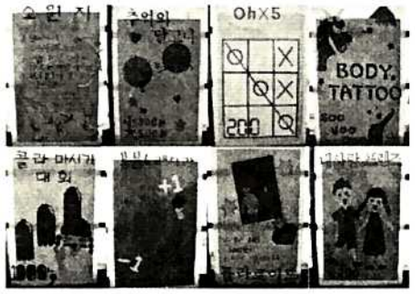
당일 날 즉흥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1번 이상은 실제로 하듯 이벤트 진행연습을 해보아야한다. 내가 진행하는 이벤트에 사람들이 몰려 너도나도 먼저 하겠다고 하는데 물품이 부족해서, 진행이 서툴러서, 진행방법을 잘 몰라서 허둥지둥대는 일이 없어야한다.

2. 통일된 복장으로 기세 있게 진행하자

이벤트진행 도우미들과 학생회가 통일된 복장을 착용하자. 한눈에 봐도 이벤트진행자가 누군지 알리는 효과와 진행자들의 기세를 높이는데도 좋다

3. 이벤트를 알리는 제목글씨를 붙힌다

어디서 무슨 이벤트를 하는지, 이동하면서 진행되는 이벤트라면 무슨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제목만보고도 알고 찾아갈 수 있도록 준비한다.



4. 왁자지껄 활기찬 이벤트마당을 준비하자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이벤트들, 몇 개 안되는 썰렁한 이벤트는 보고있는것만으로도 부담스럽다. 평안하고 조용한 분위기에는 어떠한 이벤트도 하고 싶지 않다. 도우미를 많이 모집하여 되도록 많은수의 이벤트를 한곳에서 진행하자. 왼쪽을 봐도 이벤트, 오른쪽을 봐도 이벤트가 널려있는 이벤트의 바다에 빠져들도록해보자.

다. 이런 이벤트는 하지말자

1. 상업적인 이벤트

"물풍선 10개 던지기 - 만원, 뽑기한번 - 1000원, 투호 - 500원"

돈없으면 아무것도 참여할 수 없다. 이벤트를 통해 학생들에게 재미와 참여를 유도하자는 것인지 뒷풀이비를 벌자는 것인지 분간되지 않는다. 이벤트는 학생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전폭 높혀낼 수 있는 좋은 도구로 사용되어야한다. 마음껏 참여하고 즐길수 있는 이벤트를 기획하자.

2. 소수만 참여하는 이벤트

소수만 참여하는 이벤트란 뭘까? 남여가 빼빼로 짧게 먹기, 입으로 OHP 나르기 등 "선정적인 이벤트"
노예팅같은 대다수의 "정서와 요구에 맞지 않은 이벤트"이벤트의 재료, 진행의"부족함"으로 몇몇 소수만 참여할 수 밖에 없는 상황. 몇몇에게 호응 있는, 몇몇이 좋아하는 이벤트는 썰렁한 이벤트판을 연출하게 된다. 대상을 몇몇 소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친구들이 어떤 이벤트를 좋아할 것인가의 기준으로 진행해보자.

3. 어딜가나 반복되는 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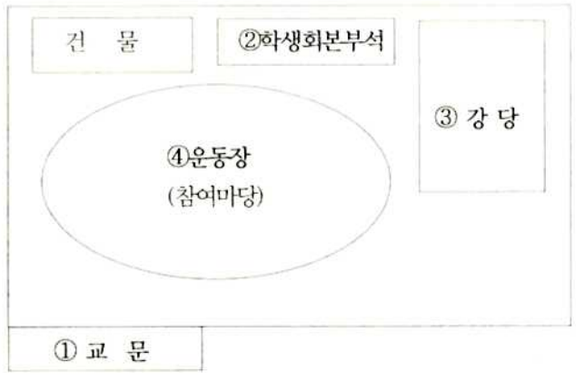
축제시즌이 되면 모든 동아리의 고민이 "뭘 할까"이다. 창조적인 방법으로 새롭고 독특한 것을 선보이는 동아리도 많지만 대다수의 동아리가 당일날까지 준비 안 된 모습, 뭘 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거리는 모습으로 어려워한다. 이것의 결과로 여기저기 똑같은 이벤트들이 진행된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자.

예) 도서동아리 - 책이름 끝말잇기, 책빨리 찾아오기, 욕들어가있는 책 찾기, 과학동아리 - 과학원리를 이용한 탱탱볼 만들기, 슬러시 만들어보기 이외 다양한 이벤트

★ *동아리에 소속되지 않은 다수의 학생들, 우리축제에 구경 온 손님들, 초등학생부터 부모님까지 모두에게 참여의 기회! 축제의 재미를 더해주는 조미료을 역할을 이벤트기획으로부터 할 수 있다. 뒷풀이 비용을 마련하기위한 이벤트진행, 몇몇 소수만 참여하고 재미있어 할 만한 이벤트, 어디가나 뻔히 있는 식상한 이벤트는 이제 버리고 모두가 하나될 수 있는 공동체적인 이벤트를 만들어보자.*

(3) 이벤트 소개

[예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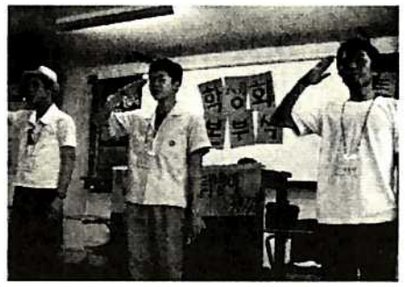
가. 교문

축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학교에 들어서는 순간 가장 먼저 보이는 곳이 교문이다. 학교로 가는 길을 안내해주는 길바닥에 붙어있는 많은 종류의 포스터를 지나 교문에 들어서게 된다. 1초면 지나치게 되는 교문이지만 여기서부터 축제의 시작이다. 교문에서부터 우리 학교에 온 손님에게 환영의 표시를 마음껏 해보자.

1. 교문인사

교문인사팀을 꾸려 복장을 맞추고 그 학교만의 특색 있는 인사법을 개발하여 준비된 모습으로 기세 있게 손님을 맞이하자.

중앙고 : 흰장갑 착용, 우천시 우비착용, 거수경례
화곡고 : 단체복(티) 착용, 교문인사와 동시에 소원지 나눠주기, 교문에서부터 학교안내
대광고 : 여학생들에게 장미꽃 나눠주기
금옥여고 : 자봉단 & 학생회 단체티 착용



2. 풍선 / 튀밥 무료로 나눠주기

축제에 온 친구들에게 헬륨가스 풍선을 나눠주자. 공짜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알록달록한 풍선들이 학교 이곳저곳에 있는 모습을 상상해보자.
우리학교 축제에 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준비하자.

3. 운동장 만국기 달기

준비물) A4용지, 크레파스, 파일속지, 빨래줄
- 전교생에게 A4용지와 크레파스를 나눠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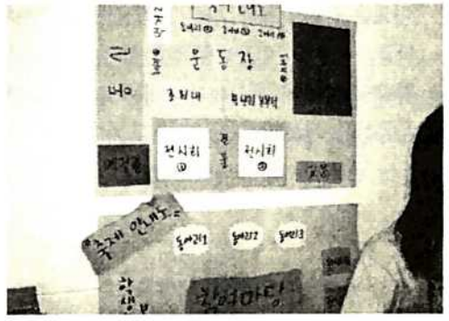
(학교운동장이 넓은 경우 2~3장씩 나눠준다)
- 학교, 친구들, 선생님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 그리고 싶은 자유주제 그림을 그린다
- 일괄 수합하여 파일속지에 용지를 끼우고 빨래줄로 속지들을 연결한다.
- 운동장을 가로질러 만국기를 단다.

나. 학생회본부석

축제 때 우리학교 학생회 본부석의 역할과 용도는 무엇인가?
축제에 가보면 학생회 본부석은 꼭 있다. 하지만 그런만큼 학생회 본부석의 역할이 뚜렷하거나 풍부하지 않다. 순서지 배부, 길 안내, 도우미 집결장소 정도로 쓰일 뿐 그 이상의 역할은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천막과 책걸상으로 만들어놓은 형식적인 본부석에서 탈피하여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활동적인 공간으로 만들자.

2. 축제 한눈에 훔쳐보기 - 축제안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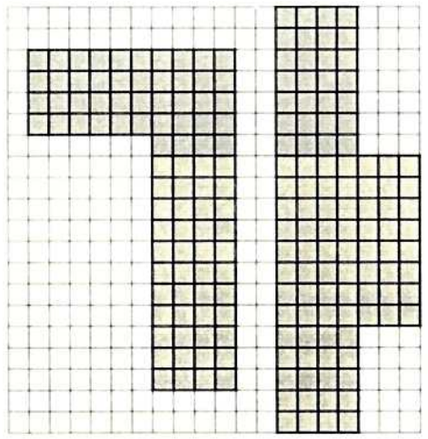
준비물) 안내도, 안내도 세워둘 지지대(판넬), 안내도 제목 붙일 글씨
교문 앞이나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해놓았던 축제 안내도를 학생회본부석 옆으로 옮겨보자.
최대한 자세하고 재미있게 만들어 놓은 안내도를 보며 친구들의 기대감은 2배3배 늘어난다.



3. 소감글로 글자 만들기 – 소감남기기

준비물) 색상별 포스트잇, 글자판, 글자판 세워 둘 지지대, 소감글 남기기, 제목글씨, 포스트잇 대고 소감글 쓸 책상, 펜

- 전지에 글자에 알맞은 숫자의 네모 칸을 그린다. (칸이 많을수록 포스트잇을 많이 붙혀야 함)
- 나타낼 글자의 선을 구분하기 쉽게 굵게 그린다.
- 단단히 세워둘 수 있도록 전지 뒤에 하드보드지나 딱딱한 것을 붙여준다.



4. 맘껏 홍보해봐! – 홍보판

축제 기간이 되면 학생회단위로 다른 학교 축제탐방을 많이 가게 된다. 축제에 가서 어렵

거나 궁굼한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보기도 하고 아이디어를 얻어가기도 한다. 하지만 서로의 축제를 홍보하거나 알 수 있는 출구는 어디에도 없다. 또한 다른 학교 학생회를 만나 교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도 놓쳐버리고 만다. 학생회 본부석에 축제 홍보판을 만들어보자. 다른 학교 학생회가 와서 팜플렛도 붙일 수 있고 짧은 홍보멘트를 쓸수도 있다. 또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여 교류할 수 있는 통로도 될 수 있다.

준비물) 우드락, 홍보판 제목글씨, 우드락 세워둘 지지대, 홍보지(포스터, 리플렛등) 꽂을 압정

5. 소원을 빌어요 – 소원지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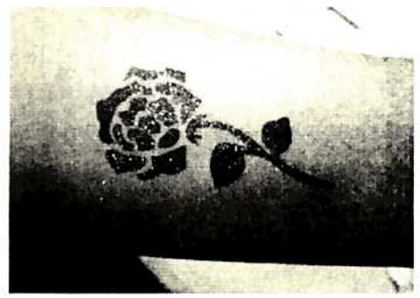
준비물) 가로 22cm 세로 7cm 정도의 크기의 한지 다량, 볼펜, 책상, 소원지쓰기 제목글씨, 새끼줄,

- 한지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놓는다
- 본부석 주변에 새끼줄을 묶어놓고 책상을 설치해 소원지 쓸 곳을 만든다.
- 책상 앞에 앉아 소원지를 쓰게 하고 새끼줄에 묶는 것까지 안내한다.

6. 페이스페인팅그리기

준비물) 아크릴물감, 붓, 물통, 단순한 그림도안

- 학생들이 소원하고 바라는 내용의 도안을 미리 준비한다.
  예를 들어 간단한 부적도안을 준비하고 "수능대박부적", "이성친구생기는 부적", "몸짱 되는 그림"등의 제목을 붙인다.
- 축제 당일 날 즉석에서 처음 시도하지 말고 사전에 친구의 얼굴에, 내 팔에 그려보는 연습을 해본다.



7. 타로카드 점 봐주기

- 전교생을 대상으로 타로카드를 할 줄 아는 사람을 홍보하여 모집한다.
- 학생회본부석에 무료로 타로카드 점 봐주기를 진행한다.

8. 유리구슬

준비물) 모래알만한 크기의 유리구슬, 검은색 도화지, 물풀 여러개, 책상
- 검은색 도화지를 A4용지의 반만한 크기로 잘라놓는다.
- 검은색 도화지에 물풀로 자기가 쓰고 싶은 글자를 쓴다.
- 풀이 마르기 전에 유리구슬에 색지를 찍어낸다.
- 유리구슬로 글자모양이 만들어진다.
- 해에 비치면 무지개빛으로 반짝인다.

다. 강당 공연

강당공연에서 어떤 이벤트를 하냐는 질문에 비슷한 대답이 돌아온다.
"번호표 추첨해서 상품주기"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멋진 공연에도 한계는 있다. 한 시간이 넘어가는 강당공연 프로그램에서 다수의 관객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은 단 5분도 주어지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관객들에게 한시간 동안의 열렬한 호응을 바라는 건 큰 오산이다. 열렬한 반응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관객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보자.

1. 비행기 날리기

'지금부터 제_회 OO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이 강당공연의 시작을 알리는 방법이다.
조금은 썰렁하기도 하고 형식적인 것 같기도 한 공연의 시작.
사회자가 개회를 여는 것이 아닌 관객 모두와 함께 개회를 열어보자.
입장할 때 비행기 접을 종이를 나눠주고 접게 한 다음 사회자의 신호에 맞춰 다같이 비행기를 날려보자.

준비물) 색A4용지
- 강당입장과 동시에 색 A4용지를 나눠준다.
- 공연 제일 처음에 비행기 날리는 순서가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한다.
- 공연 시작 바로 전 학생들이 비행기를 미리 접을 시간을 보장한다. (짜투리 시간 이용)
- 공연 개회와 동시에 비행기를 날리며 시작을 연다.

2. CF방영 / 깜짝 영상 방영

"지금부터 OO고 OO제를 시작하겠습니다."의 평범한 멘트로 시작되는 강당공연의 개회를 신선하게 열어보자. 영상을 이용한 개회는 관객의 집중도를 높힐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다. 자체적으로 제작한 CF를 보여주자.

동명여고 : 꽃을든동명 / 송곡여고 : 자일리톨 / 개포고 : 레쓰비
화곡고 : 사람으로 글자 만들어 메시지 전달 "축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 투표

댄스제, 가요제, 방송제 등등의 여러 종류의 강당공연.
어느 팀이 가장 좋았는지, 어느 팀이 가장 안좋았는지 등의 간단한 평가를 들을 수 있는 통로를 만들자. 강당공연이 모두 끝나고 할 수 있는 투표판을 만들어 놓자.

준비물) 투표판, 스티커, 지지대

별표 체 / 점 공연	★★★★★	★★★★	★★★	★★	★
××고 응원댄스	스티커 붙이는 곳	스티커 붙이는 곳	스티커 붙이는 곳	스티커 붙이는 곳	스티커 붙이는 곳
×××고 밴드공연	스티커 붙이는 곳	스티커 붙이는 곳	스티커 붙이는 곳	스티커 붙이는 곳	스티커 붙이는 곳

4. 공연 중간에 이벤트타임 진행(이벤트진행자 별도로 진행)

· 문자빨리보내기

정해진 문자내용과 번호를 알려주고 가장 빨리 보낸 사람에게 선물 증정
준비물) 창조적인 문자내용, 문자 내용 있는 전지(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크게)

축제를찾아주신여러분!!고맙습니다
다음해에도잊지말고찾아주세요♥U
○○고등학교만세

· 주인공을 찾습니다

198×년 십원짜리 있는 사람, 강당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큰 발싸이즈인 사람 등 특이한 물품 소지자, 구멍 난 양말, 흰 머리카락, 껌, 애인사진 등

라. 참여마당

1. 폴라로이드 사진 찍어주기

준비물) 폴라로이드 사진기, 필름, 간단한 문제들, 이벤트 진행 중임을 알리는 여러 가지 도구들(특이한 복장, 종이글씨, 확성기 등), 사탕, 튀밥등 간단한 선물
- 학교, 사회, 시사, 방송연예, 상식 등에 관련된 쉽고 간단한 문제를 준비한다.(객관식)
- 2인1조로 짝을 이뤄 진행한다.
- 한눈에 무슨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특이한 복장을 한다거나, 종이에 "사진 찍어드립니다"등의 문구를 써서 목에 걸고 다닌다거나 하는 식의 홍보를 한다.
- 돌아다니면서 준비한 친구들에게 문제를 내고 맞추면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어준다.
- 못 맞추면 사탕 등 싸고 저렴한 가격의 선물을 준다.

2. 뽑기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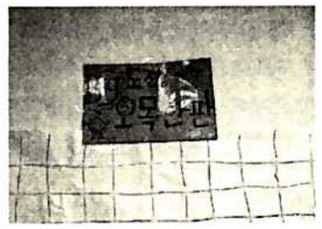
준비물) 하드보드지, 종이, 스태플러, 각종 선물들
① 가로 4cm, 세로 1cm 정도로 종이를 잘라 "아이스크림, 사탕, 부채, 양말, 인형, 꽝" 등 다양한 선물들을 적는다.

② 반으로 접어 하드보드지에 대고 스태플러로 찍는다.
- 제정지원을 받아 손님들에게 마음껏 선물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 이용하자.
- 뽑은 선물을 바로 줄 수 있도록 지참한다.
- 진행자가 돌아다니면서 손님들과 가위바위보를 한다.
- 진행자에게 이긴 사람들에게 뽑을 기회를 준다.

3. 동전, 카드뒤집기

준비물) 동전 50개, 카드1개, 책상
- 대항게임이다
- 동전의 앞, 카드의 앞을 맞춰 책상에 올려 놓는다.
- 시작소리와 동시에 앞으로 놓여있는 동전(또는 카드)을 뒤로 먼저 뒤집으면 이긴다.

4. 오목대회



준비물) 전지2장, 하드보드지, 검은색 하얀색 종이, 비닐, 부직포
① 전지2장을 붙이고 선을 그어 대형 오목판을 만든다.
② 오목판을 비닐로 싼다.
③ 선과 선이 만나는 곳에 부직포를 붙인다.
④ 하드보드지를 원모양으로 오려 알을 만든다.
⑤ 하드보드지로 만든 알에 검은색과 하얀색 종이를 붙인다.
⑥ 만들어놓은 알 뒤에 부직포를 붙인다.
- 만들어 놓은 오목판을 벽에 붙인다.
- 가위바위보로 오목알 색을 정하고 순서를 정한다.
- 먼저 4개가 이어지는 사람이 이긴다.

* 그 외의 참여마당에 대한 것은 (사)21세기 공동체 희망, 학생회센터로 문의하세요.

(4) 이벤트물품 구입정보

1. 종이 싸게 사는 방법

보통 색지 4절지 한 장에 300원선, 색지 전지 한 장에 1,500원선이다. 그러나, 색지 4절지에 90원, 색지 전지 한 장에 320원선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을지로3가 인쇄골목은 우리나라, 아시아, 세계 최대 인쇄밀집지역이며 인쇄가 발달된 동네이다. 이곳에 가면 마스터(인쇄)부터 각종 인쇄를 싸고 좋게 인쇄할 수 있다. 그리고 이곳에는 또 한 가지, 종이가 무지 싸다.

흰 전지(대자보) - 500장 기준 35,000원선
색 전지 - 1장 기준 320원, 머메이드지 400원-500원선
색 4절지 - 색 전지를 4절지나 2절지로 절단해 줌. 그럼 320원*4 = 90원 꼴의 견적이 나오게 된다.

* 색전지는 "전광특수지업사"에서 사면 됨. 한 가지 색에 10장 이하는 취급 안함.
* 흰 전지는(모조전지, 대자보) "일진지업사"에서 사면 됨. 250장 이하는 취급 안함.
* 전화주문이 가능하며 배송도 가능하나 운임을 부담해야한다.
* 축제에 돌입했을 때 이 밖의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을 알고 싶을 때 문의하세요.
(문의 : 796-2278/ 7021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대동제]

(1) 대동(大同)제란 무엇인가?

가. 대동제의 정의

대동제는 말 그대로 '크게 하나가 되어 노는 판'이라는 뜻이다. 현재 학교 축제에서의 대동제는 모두가 어우러져 힘차게 뛰어 놀면서 마지막 폐막을 알리는 행사로서 널리 알려지고 행해지고 있다.

나. 대동제 판의 구성

대동제 판에는 학생들이 보이는 위치에서 전체 판을 쥐고 가는 사회자와 직접 학생들과 함께 섞여서 원활한 진행을 이끄는 진행요원이 필요하다. 그 학교 축제에 참가한 많은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를 진행 할 때의 시설 및 소품으로 음향 시설, 소원지, 장작, 불꽃놀이, 박 등을 준비해야 한다. 학생회는 대동제 판을 준비하기 위해 학생회 내부에서 대동제 준

비팀을 꾸리며 준비팀을 중심으로 사회자, 진행요원, 홍보, 실무준비 등을 맡아서 한다.

다. 대동제 하면 도움되는 것!

1. 최고의 홍보력!

성공적으로 끝내서 학생들의 호응이 좋았던 대동제는 내년 학생들의 축제 참여율을 높인다. 게다가 다른 학교 학생들은 다른 축제에서 맛볼 수 없는 즐거움을 느끼고 입소문이 퍼져 외부 손님은 늘어난다.

2.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

많은 손님들과 학교의 동아리가 없는 학생들도 보기만 하는 축제가 아니라 직접 참여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3. 이보다 더 멋지고 깔끔한 폐막식은 없다!

지금까지 흐지부지 끝나 버리던 학교 축제의 끝을 멋지게 마무리를 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다.

4. 학생회의 입지를 세워 준다!

학생회가 축제의 꽃인 대동제를 끝으로 마무리를 잘 하면 학생회를 보는 선생님들이나, 학교 학생들의 시선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축제 외에 다른 사업을 할 때에도 학우들의관심이 높아지고 선생님의 반응이 달라지는 효과가 있다.

5. 학생들에게 멋진 추억을 선물 할 수 있다.

우리가 학생회라면 학교생활에서 학교 학생들에게 기억에 남는 하나쯤에 추억을 남겨주어야 하지 않을까? 모두가 하나 되어 뛰어 놀던 대동제의 특별한 추억은 잊지 못 할 추억이 될 것이 분명하다.

(2) 대동제의 필수요소

가. 사회자

1. 사회자의 역할

대동제의 전체판에 대해 완전히 숙지하여 학생들에게 각 순서를 소개하고 전체 대동제를 진행해 가는 역할을 한다.

2. 사회자 유의사항

학우들의 움직임을 살피며 진행요원들과 수시로 신호를 주고 받아야한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다음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진행요원들이 모두 사회자에게로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고 말이 전달되었음을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전에 사회자와 진행요원들 간의 의사소통의 수단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정하자.

예) 사회자가 준비가 되었냐는 물음에 준비가 되었으면 진행요원들이 머리 위로 원을 만들어 표시한다.

상황마다 재치 있는 말과 순발력으로 진행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대동제를 진행하다 보면 돌발 상황들이 많이 발생 할 수 있다. 원 만들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서 시간이 지체 될 수도 있고, 음향 시간이 늦춰 질 수도 있고, 박이 잘 안 터질 수도 있고, 여러 상황들이 발생 할 수 있다. 가장 좋은 것은 이런 돌발 상황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 하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있을 수 있는 돌발 상황에 사회자가 당황 하여 어쩔 줄 몰라하면 참여하는 학생들은 실망 할 수도 있다. 그때마다 재치있는 말로 학생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3. 사회자 선정기준

㉠ 대동제 판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여야 한다. 대동제 진행을 원활히 하고 돌발 상황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장 요구되는 것은 대동제를 잘 알고 연습을 많이 하여 대동제 판을 머리속에 그림을 그릴 정도가 되는 사람이 사회자를 맡아야 한다.

㉡ 재치 있고 순발력 있는 학생이면 더욱 좋다. 사회자의 선정에서 물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판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지만 재치 있고 순발력 있는 학생이면 돌발상황에 잘 대처 할 수 있으므로 좋다.

나. 진행요원

1. 진행요원의 역할

㉠ 학생들의 움직임을 이끌어냄 - 집단으로 있는 학생들은 매우 소극적이고 혼잡하다. 그런 학생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짝을 지어지고 춤을 보여주어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대동제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한다.

㉡ 대동제의 대형을 만든다 - 학생들의 이끌어낸 적극성만으로는 대동제를 하기엔 부족하다. 대동제에 중요한 것은 대형을 만드는 것인데 그것을 진행요원이 계획적으로 만든다.

㉢ 대동제에 진행에서 실무 해결 - 박 터트리기에서 박을 준비 하거나, 불꽃놀이를 준비하거나 음향을 틀거나하는 등의 실무를 담당한다.

㉣ 사회자와 학생들의 연결다리 - 모여 있는 학생들이 사회자의 말을 잘 듣고 따라하면 좋겠지만 처음 본 학생들과 함께 어울려 노는 대동제는 그렇지만은 않다. 진행요원은 전체 판을 쥐고 있는 사회자의 의도에 따라 학생들을 움직이는 연결 다리 역할을 한다.

2. 진행요원 유의 사항

㉠ 무조건 적극적 이어야한다 - 그날 온 학생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소리만 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말 한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처음 본 사람들과 손을 잡거나 가위 바위 보를 하는 것 등은 어려운 일일 것이다. 이런 학생들의 움직임을 이끌기 위해서는 진행요원들의 무조건적인 적극성이 필요하다. 짝이 없는 사람의 손을 잡고 짝을 지워 주고 가위 바위 보 짝을 지워주는 등의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각 순서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어떤 순서에서 머리, 꼬리는 누구인지? 시범을 보이는 조는 누구인지? 박과 불꽃놀이, 모닥불 누가 옮기는지 등에 대해 잊지 말고 그 때 그 때 빠르게 움직여서 진행을 원활히 해야 한다.

㉢ 진행요원임을 나타 낼 수 있는 공통의 표시가 필요하다. - 예를 들어 옷을 모두가 맞춘다던지 진행요원이라 써있는 큰 명찰을 한다든지 흰 장갑을 낀다든지 하는 진행요원임을 알 수 있는 통일성 있는 것을 맞추어야 한다.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손을 잡고 소리를 질러야 하는데 있어서 진행요원임을 알리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다. 음향시설을 갖춘 운동장 / 강당

대동제의 진행은 강당에서도 진행이 가능하나 소원지 태우기나 불꽃 놀이등 밖에서 해야 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한 대동제 판은 운동장에서 하는 것이 기본이다.

운동장(강당)에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잘 갖추어진 음향 시설이 필요하다. 사회자의 진행과 각 순서에 맞는 흥겨운 노래를 틀기 위해서는 음향 시설의 중요함을 알고 미리부터 음향을 체크하고 몇 번의 리허설을 거치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 만약 음향이 안 될 경우를 대비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실제 O여고 에서는 음향 시설의 문제로 운동장에서 육성으로 대동제를 진행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해서 음향 준비에 중요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라. 각종 대동제 물품 준비 방법

1. 박 만들기

준비물 - 박 크기 정도의 바구니 2개, 한지, 신문지 , 각종 이면지 색지, 중간 굵기에 PVC봉, 풀, PC 천, 먹물과 붓, 철사

만드는 법 – ㉠ 2개의 바구니에 풀을 이용하여 각 각을 한지로 둘러싼다. ㉡ 그 2개의 바구니를 마주보게 하여 철사로 한 부분만 연결한다. ㉢PC천에 먹물과 붓을 이용하여 터트려질 박에서 나올 문구를 쓴다.㉣써진 문구를 잘 접어 박안에 넣는다. ㉤각종 이면지와 색지, 잡지 등을 잘게 찢어서 박안에 넣는다.㉥신문지를 풀을 이용해 2개의 박이 만나는 부분에 붙인다. ㉦ PVC 끝 부분에서 구멍을 내어 아까 두 개의 박을 철사로 연결한 부분과 겹치게 하여 박과 튼튼하게 연결한다.

주의할 점 – PVC봉과 박을 잘 연결해야 한다. 신문지를 박에 맞닿는 부분에 붙일 때 너무 많은 신문지를 붙일 경우 박이 열리지 않을 수 있으니 적당히 붙이자

* 박 안에 내용물을 넣지 않은 상태에서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다.

2. 만장

준비물 – PC천, 얇은 PVC 봉, 먹물과 큰 붓, 두꺼운 테이프, 50cm정도의 짧은 각목 1개

만드는 법 – ㉠ PC천에 먹물과 큰 붓을 이용하여 세로로 문구를 쓴다. ㉡PVC봉 끝에 각목을 직각으로 놓고 못을 이용하여 단단히 고정시킨다. ㉢ PC천에 먹물이 마르면 PVC봉과 각목에 테이프를 이용해 천을 붙인다.

* 이때 PC천의 길이보다 PVC봉의 길이를 조금 더 길게 제작해야 한다.

3. 소원지

준비물 – 한지, 칼, 가위, 펜, 긴 새끼줄

만드는 법 – ㉠ 한지를 가로 20cm 세로 5cm 가량으로 칼로 자른다.

㉡ 펜으로 한지에 자신의 소원을 쓴다.

㉢ 적절한 장소에 새끼줄을 이어 놓고 소원을 쓴 소원 지를 잘 말아서 묶는다.

4. 캠프파이어

캠프파이어는 따로 학생회에서 준비하기는 어렵고 전문 업체에서 캠프파이어용 장작을 사서

학생회에서 석유를 뿌려 놓고 점화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비용이 부담되거나 학교에서 허가가 내려오기 힘들다면 캠프파이어를 하지 않고 학생들의 소원지에 석유를 부어 태우는 것도 좋다.

마. 최종리허설

1. 대동제 최종 물품과 진행요원 다 같이 리허설 날짜 정하기

이 날까지는 물품이 완벽히 나오자는 것과 진행요원의 준비를 완벽히 한다.

2. 음향 시설 점검

축제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은 진행 사고가 나는 부분은 바로 이 음향일 것이다. 이 음향 확인을 최종 리허설 날에 꼭 점검하여 진행사고를 미연에 방지 한다.

3. 동아리 점검

풍물패와 방송반과의 미리 미리 점검을 통해 최종 리허설 때는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한다.

(3) 대동제 프로그램

대동제 순서

풍물패의 길놀이 -> 개회 -> 율동 -> 기차놀이 -> 대문놀이 -> 인간 줄다리기 -> 짝춤 -> 박 터트리기 -> 모닥불 점화 -> 폐회

1. 풍물패의 길놀이

대동제의 시작을 위해 모든 공연이 끝나고 강당에서 나오는 학생들을 운동장으로 이끌기 위해 풍물패 기본 박자를 치며 운동장을 원을 그리며 돈다. 그 뒤로 학생들은 모두 손을 잡고 흥겹게 따라오며 자연스럽게 대동제를 하기 위한 운동장에 모이게 된다.

사회자 – 공연 이후 대동제의 시작한다고 하는 멘트를 해주어야 한다. 참여를 독려하는 멘트를 쉬지 않고 해 준다. "지금부터 운동장에서 신나게 뛰어 놀 수 있는 대동제를 진행 할 예정이니 학생들은 풍물패를 따라 모두 손을 잡고 운동장으로 이동 해 주세요."

진행요원 – 진행요원은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운동장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소리를 지르고 또, 학생들의 손을 직접 잡고 운동장으로 이동을 한다. 풍물패를 따라 원을 만들 수 있게 가장 선두에 서서 긴 줄을 이끄는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 적극적이고 준비 요원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학생들은 대동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2. 개회

대부분의 학생들이 운동장에 모여 있으면 이제 풍물을 멈추고 정식으로 대동제를 시작하는 선언을 하는 부분이다. 대동제의 시작을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기세 있게 대동제의 시작을 알린다.

사회자 – 대동제 개회의 멘트를 조리 있게 잘 짜서 얘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세가 있는 큰 목소리로 개회를 힘차게 여는 것이 더 중요하다. " 지금부터 / OO 고등학교/ 제 OO회 /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 대동제를/ 힘차게 / 시작 /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을 끊어서! 강조 하면 외친다)

진행요원 – 진행요원은 사회자가 멘트를 끝내면 바로 큰 함성으로 대동제의 기세를 높여 다른 사람들도 같이 큰 함성을 지르는 것에 민망하지 않도록 열광한다.

3. 율동

개회 선언이 끝나고 진행요원들은 무대 앞이나 원의 중앙에서 미리 준비한 율동을 추는 것이다. 이것은 보는 학생들을 대동제로 집중을 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자신의 친구들이 바로 운동장에서 율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웃기도 하고 잘하면 박수와 호응을 보내면서 자신들도 모르게 대동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대동제에 집중을 할 수 있다.

사회자 – 사회자는 개회선언이후 바로 진행되는 율동이므로 어떤 역할이 있는 것은 아니고 율동이후 진행될 순서를 준비한다.

진행요원 – 개회선언이 끝나자마자 미리 준비 된 대형으로 모이고 노래가 나오면 율동을 한다. 이것은 진행요원들의 사전 연습 많이 필요하다. 율동은 학생회 활력 프로젝트에서 배워보자.

4. 기차놀이

처음에 두 명이 짝을 지어 가위 바위 보를 한다. 진 사람이 뒤로 가서 이긴 사람의 어깨 위에 두 손을 얹어 처음 기차놀이 대형을 만든다. 처음 만들어진 기차로 기차놀이의 율동을 배우고 그 다음 노래에 맞춰 율동을 두 번 추고 노래를 멈춘다. 멈춘 뒤 마주보는 기차와 다시 가위 바위 보를 한다. 진 사람이 뒤로 가서 기차를 만든다.
줄이 길어 질 때까지 기차놀이를 4~5번 정도 반복한다.

사회자 – 전체적인 진행으로 학생들이 기차놀이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알려준다. 진행요원이 운동장안에서 진행하는 정도에 따라 진행요원과의 상황을 파악 한 다음 멘트를 한다.

[1. 두 명씩 짝을 지어주세요, 그리고 가위바위보!!
2. 진 사람이 이긴 사람 뒤로 가서 어깨를 살포시 잡아주세요
3. 자 기차놀이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 칸이 완성되었습니다. 기차를 출발시키겠습

니다~

4."오른발, 오른발, 왼발, 왼발, 앞으로 뒤로 앞으로 앞으로,"x2 그 다음"가위바위보."]

1~4를 반복한다

진행요원 – 사회자의 진행에 맞추어 학생들을 움직일 수 있게 한다. 처음 두 명 씩 짝을 지을 때 짝을 못 짓는 학생들을 찾아 서로 짝을 지어준다. 학생들이 많을 경우 사회자

쪽에 있는 시범 조를 집중하기 어려우므로 곳곳에서 기차놀이 율동을 알려주는 역할도 맡아야 한다. 또한, 기차놀이가 진행될 때 율동 후 기차끼리 가위 바위 보를 할 수 있도록 서로 적극 기차를 끌고 다니며 연결 해 주는 역할을 한다.

5. 대문놀이

기차놀이에 의해서 생긴 긴 줄을 두 줄씩 쌍을 만든다. 그 두 쌍은 서로 마주보고 한사람씩 손을 잡는다. 그러면 아래 사진과 같이 통로(대문)가 만들어 진다. 신나는 노래와 사회자의 시작 멘트에 맞추어 끝에 있는 사람부터 한사람씩 대문으로 들어가고 손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대문을 지나가는 사람을 살짝 내려친다. 대문을 끝까지 지난 사람은

대문이 끝난 곳부터 다시 처음 짝과 대문을 만든다. 모든 사람이 대문을 지나 갈 때 까지 대문놀이를 진행한다.

사회자 – 기차놀이 후 지금부터 대문놀이 진행을 하겠다고 알리고 두 개의 기차 씩 짝을 이루도록 멘트한다. 두 개의 기차씩 서로 마주보고 손을 잡도록 하고 짝이 없는 친구들은 짝을 지어 달라고 진행요원에게 얘기 한다. 이때 기차가 짝을 짓기 위해 이동을 하는 손을 놓지 말라고 강조 한다.

진행요원 – 기본 사회자의 멘트에 따라 움직인다. 기차를 두 개씩 짝을 지을 수 있도록 각 기차의 담당을 정하여 대문놀이를 할 수 있는 대형으로 만든다. 마주 본 두 기차를 짝을 지을 수 있게 서로 손을 잡게 한다. 모두가 처음 본 사람이므로 쉽게 손을 잡기 어려우므로 진행요원들이 끝에서부터 시작하여 한명 씩 한명 씩 짝을 지어 주면서 반대 끝으로 간다. 남는 학생들은 줄을 옮겨서 짝을 맞추고 혼자 남는 친구가 있으면 진행요원이 직접 짝이 된다.

6. 인간 줄다리기

인간 줄다리기는 아래 그림과 같이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긴 줄에 있는 사람들이 허리를 잡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긴 줄 두 개를 그림과 같이 서로 앞부

분이 마주보도록 한다.
각각의 끝에 있는 두 사람이 팔을 엉키면 인간 줄다리기의 대형이 나온다. 사회자의 구령과 신나는 음악에 맞춰 줄다리기를 하면 되고 허리를 잡고 있는 것이 끊기는 줄이 지게 된다. 이 인간 줄다리기는 힘을 쓰는 것임으로 안전에 주의 할 필요가 있다.

<인간 줄다리기>

사회자 – 전체 학생들이 어찌 움직여야 하는지 계속 얘기 해 준다. 대형을 만들기 위해 이동할 때 각 줄에서 줄다리기를 위해 앞사람의 허리를 잡는데 그 허리를 절대 놓지 말라고 강조해야 한다. 대형이 완성되면 시작을 기세 있게 외쳐 줘야 한다. 시작과 동시에 노래가 나와야 함

진행요원 – 기본 사회자의 진행에 맞추어 학생들을 움직인다. 줄다리기 대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줄을 이끌고 갈 담당 진행요원이 있어야 하고 진행요원들이 각 줄에 앞으로 가서 두 개의 줄 끼리 앞부분끼리 서로 마주 볼 수 있도록 잘 이끌고 와야 한다. 그러므로 각 각의 줄을 이끌 진행요원들을 미리 정해 놓아야 한다. 그 외 진행요원들은 각 각 줄에서 앞사람의 허리를 잡은 것이 끊어 지지 않도록 소리 쳐주고 다시 이어 주고 해야 할 것 이다.

7. 짝춤

대동제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이다. 이 짝춤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대동제의 성패를 가를 정도로 성공하기도 어려운 고난이도의 순서이다. 물론 되기만 한다면 항상 대박을 내는 순서이기도 하다. 두 개의 이중 원을 만들어 안 쪽과 바깥 쪽 원이 서로 짝을 이루고 짝춤 율동을 추는데 한 번씩 같이 율동을 추고 또 짝을 바꾸어 춘다. 이런 식으로 짝춤 노래가 끝 날 때까지 반복한다.

① 짝 춤 대형 만들기 (이중 원 만들기)

짝춤을 추게 하는 것도 힘들지만 짝춤에서 가장 어렵고 중요한 것은 짝춤 대형인 이중 원을 만드는 것이다. 흩어져 있는 각 각의 줄들을 하나는 바깥 쪽 원 하나는 안 쪽 원을 만드는 것인데 많은 학 교에서 이 과정의 어려움으로 짝춤을 못하거나 많은 시간 대형을 만드는 것에 만 할애해 대동제 전반 분위기를 힘이 빠지게 했던 경우가 있었다. 우선 각각의 줄에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는 옆 사람의 손 을 잡고 원을 만들기 위해 이동한다. 여기서 대형 만들기가 어려운 것은 학생들이 잡고 있던 손을 놓는 것이 이유이다.

사회자 – 사회자는 진행요원의 움직임을 일러 준다. 사회자는 운동장이 한 눈에 보이는 곳에 위치 하므로 어디가 원이 잘 만들어 지고 있는 지 어디가 안 만들어 지고 있는 지에 대해 얘기 해줄 수 있다. 그리고 참여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옆 사람과 잡은 손을 절대 놓지 말라는 것(가장 중요함)을 강조해서 얘기 한다. 이중 원이 만들어 졌으면 안쪽 원이 뒤를 돌아서 바깥 쪽 원과 마주보고 짝을 짓게 한다.

진행요원 – 대형을 만드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차놀이 이후에 다른 놀이가 물론 진 행이 되지만 기본 만들어져 있는 그 줄에서의 머리와 꼬리에 서서 그 줄을 이끌 역할을 할 진행요원 을 미리 정해 놓는다. 또한 그 진행요원의 줄이 안 쪽 원이 될 것인지 바깥 쪽 원이 될 것인지 미리 정해야 한다. 짝춤 대형을 만들 때가 오면 미리 정해 주었던 한 쌍의 머리, 꼬리의 진행요원은 하나의 줄을 정하고 미리 정한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줄을 끌고 온다. 이때 다른 진행요원들은 각 줄의 학생들에게 맞잡은 손을 절대 놓지 말라고 외치며 실제 손을 놓은 학생들을 다시 이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역시 이중 원이 만들어 졌으면 안 쪽 원이 뒤를 돌아 바깥 쪽 원과 마주보는데 손을 잡으라고 사회자가 얘기 하지만 잘 손을 잡지 않거나 짝이 없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역시 진행요원은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씩 손을 잡아 이어주고 짝이 없는 사람은 없는 짝이 없는 사람끼리 짝을 이어 줄 수 있게 짝이 없는 사람을 찾아 손을 들으라하고 잘 찾아서 데려와서 이어 준다. 매우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ㄴ 짝춤 추기

이렇게 짝을 모두 이루었다면 다음은 짝춤을 배우고 추는 과정이다. 짝춤은 사회자가 있는 무대에서 시범을 보일 시범 조와 운동장에서 시범을 보일 진행요원에 의해 학생들에게 잘 알려줘야 한다.
짝춤은 우선 짝과 손을 잡고 바깥 쪽 원에 있는 사람이 오른쪽으로 발을 내밀며 시작한다. 내밀기를 한 박자 다시 오는 걸 한 박자 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4박자를 맞추고 그 방향으로 짠짠짠에 맞춰 세 번 작게 점프해서 간다. 왼쪽으로도 반복해서 발을 내밀고 다시오고 짠짠짠 세 번 점프해서 간다. 그리고 짝과 손뼉 치기를 하고 서로의 오른 팔을 끼고 한 바퀴 돌아서 바깥 쪽 원이 왼쪽으로 한 칸 씩 이동하여 짝을 바꾼다.
이것을 몇 번 연습하고 준비된 노래에 맞춰 춘다.

사회자 – 학생들에게 짝 춤을 가르쳐 줘야한다. 시범을 보일 진행요원들을 무대위로 준비시키고 다 음과 같은 멘트를 통해 율동을 알려주면서 해주면 좋다.

1. 바깥쪽 원에 있는 사람이 오른쪽으로 갑니다.
2. 동작은 크게 신나게 해봐요
3. 팔짱 끼고 돌 때 오른쪽 팔을 끼고 돌면 되요
4. 마지막, 짝이 바뀌어야 재밌겠죠? 바깥쪽이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합니다.
5. 능숙한 도움이들의 시범을 보면서 따라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짠짠짠, 둘둘 셋 넷 짠짠짠, 짝짝짝, 짝짝짝 돌고"
사회자의 구령이 귓가에 돌면서 그대로 하게 되어있다. 아무리 사회자의 말이 집중이 안 된다고 하지만, 사회자가 구령을 붙여주는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된다. 이때 진행요원 들도 큰소리로 구령 을 하게 해야 한다.

진행요원 – 이 춤은 간단하지만 처음 본 학생들은 따라 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진행요원들은 곳곳에서 시범을 계속 보여주고 짝을 바꾸는 요령을 알려줘야 한다. 뛰어 다니면서 학생들에게 적극 알려 준다.

8. 박 터트리기

높이 서 있는 박을 콩 주머니로 맞추어 터트리면 그 안에 긴 문구와 형형색색의 색지가 멋있게 나오는 것이다. 또 한 대동제의 막바지 순서로 폐회로서의 대동제에 의미를 담을 수 있다. 박을 터트려 안에 있는 문구로 학생들에게 "찾아와서 감사 하다", "지

금까지 준비했던 분들 고생했다", "내년에 다시보자" 등의 내용을 전할 수 있다.

사회자 –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박 터트리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원의 중간을 진행요원들이 밧줄로 반을 나누고 있고 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요원들은 콩 주머니를 바닥에 뿌려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박 터트리기를 하는데 학생들에게 순서의 이해를 할 수 있게 멘트를 해 준다. 이것도 역시 박 터트리기의 시작을 힘차게 외쳐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두 개의 박이 모두 터졌을 때 모두 박수를 치자고 하고 다같이 하나씩 문구를 외쳐보자고 얘기 하고 함께 외친다.

진행요원 – 박 터트리기에서는 우선 빠른 진행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역할 분담을 잘 하고 역할을 맡은 사람은 언제 움직여야 하는지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우선 밧줄 따위로 이중원의 중간을 가로 길러 반을 나눌 두 명의 책임자와 두개의 박을 각각 가져 올 책임자 그리고 한 개의 박에 두 명씩 총 네 명과 바닥에 콩 주머니를 뿌릴 책임자 네 명가량이 필요하고 이것이 짝춤 노래가 끝나고 바로 준비 되어야 한다.

9. 모닥불 (소원지 태우기)

준비 된 모닥불의 불을 붙이고 사회자의 준비 된 분위기 있는 멘트로 대동제의 마무리를 한다.
불을 붙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 모닥불을 준비 해주는 업체와 얘기해서 건물위에서 모닥불로 불똥이 내려와 점화하는 방법과 의미 있게 학교의 학생들의 대표인 학생회장이 점화를 하는 방법이 있고 특별히 점화를 의미를 두지 않고 위험하다며 선생님이 붙여 주는 경우도 있다. 점화를 할 때는 모두가 하나, 둘, 셋을 다같이 외치고 점화를 한다. 점화를 한 후에 학생들이 적은 소원지를 묶은 새끼줄을 태운다. 이것은 학생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염원하는 의식행사이다.

사회자 – 점화를 할 때 학생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호응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다같이 점화 시작을 알리는 구호를 유도한다. " 자 지금부터 모닥불 점화가 있겠습니다. 점화를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 둘, 셋과 동시에 점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 둘, 셋! 점화~ (점화 후)박수~"
소원지를 태울 때는 쫌 분위기 있는 멘트를 해 준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직

접 써 주셨던 소원지에 소원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는 염원을 담아 태우는 순서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면 그리고 고3 선배들은 입시를 잘 치르시길 바라며 우리의 소원인 통일(농담)이 꼭 되길 바라며 자 소원지를 태워 주십시오~"

진행요원 – 이 부분도 역시 전체 사회자 집중으로 진행이 가능함으로 진행요원은 점화를 준비하거나 소원지를 사회자가 말하는 순서에 맞게 미리 준비 해 놓는 역할을 한다. 이 때 누가 어떤 것을 준비 할 것인지에 대한 미리 책임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10. 폐회

축제의 꽃이자 마지막을 알리는 폐막의 상징 대동제에서 마지막 폐막 멘트를 통해 축제를 준비 했던 사람들에게 격려와 박수를 보내는 시간으로 뜻있는 축제 마무리로 만든다. 한 H고는 폐회 멘트와 함께 학교의 각 교실의 전등을 이용해 큰 글씨를 만들어 강한 인상을 주기도 하였다.

사회자 – "지금까지 OO축제를 만들기 위해 고생하신 모든 사람들과 밤늦게 까지 남아 몇 날 며칠 공연 연습과 축제 준비에 노력 하신 모든 분들께 우리 모두 박수를 칩시다. 지금까지 OO 축제를 참여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내 후년에도 더욱 발전 하는 OO 축제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요원 – 큰 박수로 마무리 한다.
*이 부분에서 폐회 멘트 바로 전에 미리 준비한 불꽃놀이를 할 수 있다.

(4) 대동제 돌발 상황 이렇게 대처 해 보자

대동제를 진행하다 보면 여러 돌발 상황들을 피할 수 없다. 실제 작은 돌발 상황에 미흡한 대처로 대동제의 성패가 갈리기도 한다. 이러한 대동제의 돌발 상황 어떤 것이 있는지 미리 대비하여 완벽한 대동제를 만들어 보자.

1. 사회자 목소리가 안 들리면 어쩌지? (앰프 마이크 문제)

사회자 중심의 대동제는 마이크가 안 될 경우 정말 망하는 지름길이다. 이때는 사회자의 진행이 없이도 진행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진행요원의 준비가 필요하다. 소리를 크게 지른 다 던지 다음 진행 할 것을 팻말로 제작하여 학생들이 보고 따라 할 수 있도록 진행요원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2. 사람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많은 인원대처)

이 때 역시 진행요원의 준비 정도가 중요시 된다. 너무 많은 경우는 짝춤에서가 문제인데 큰 하나의 이중원은 힘들다. 그러므로 많이 올 경우를 대비 하여 두개의 이중 원을 만들 수 있도록 머리와 꼬리를 한 명씩 더 지정하여 그 때 즉각 돌발 상황에 반응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3. 너무 어두우면 어떡하지?

학교의 조명이 있는 경우 학교의 조명을 키도록 할 수 있게 미리 수위 아저씨와 사전 얘기를 한다. 학교 조명이 없을 경우에 H고에서는 학교의 각 교실에 불을 켜는 경우도 있었다. 이 방법도 매우 밝은 편이고 이것 역시 미리 대동제 전에 사전 합의를 학교와 해야 한다.

4. 풍물패, 방송반과의 연대는 어떻게?

방송반과의 연대도 중요하다. 음향이 제때 나오고 음향 기기에서 오는 돌발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전에 충분하게 대동제 판을 방송 반에 숙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풍물패와의 사업도 매우 중요하다. 만약 풍물패에게 정확한 역할을 합의 하지 않으면 대동제때 길게 자신들의 공연을 하여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게 될 것이고, 잘 합의를 했다면 풍물패의 도움으로 대동제 판의 흥을 크게 돋울 수도 있다. 풍물패와도 역시 대동제 전에 분명한 역할과 길놀이 때의 동선 등을 잘 알려 주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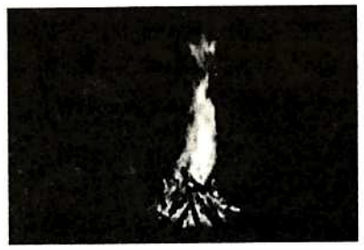
5. 갑자기 시디가 안 되면 어떻게?

① 시디가 고장 날 경우 – 시디를 여러 장 굽는다.
② 기계가 고장 났을 경우 – 테이프도 여러 장 구워나서 카세트를 이용해 마이크의 볼륨을 올려 이용한다.
③ 이외의 경우 – 진행자와 진행요원이 노래를 외우고 있어 기차놀이나 대문놀이 노래 정도 짧은 노래는 외우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경우가 있고 또는 진행요원 개인 중 시디 장비를 준비 해 놓는 것도 좋다.

* 가장 좋은 것은 리허설이나 잦은 점검을 통해 돌발 상황을 아예 없애는 것이다.

(5) 대동제 정보 모음

1. 장작 구입 방법과 가격



대동제의 마지막 부분의 의미 있고 기억에 남기기 위한 필수 아이템인 캠프파이어의 장작은 인터넷의 사이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학교 대동제에서 캠프파이어로 쓸 장작의 양은 많지 않아도 되며 사이트에서는 박스 단위로 팔고 있으며 2박스에서 3박스 정도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2박스 이상이면 학교로 오는 배송은 무료이고 가격은 1박스당 15,000원이다. 캠프파이어 하기 위해서는 이외에 석유를 사야하고 적당량을 주유서 에서 통으로 구입할 수 있다.

2. 불꽃놀이 구입 방법과 가격

축제 마무리에 시선을 확 집중시킬 수 있는 불꽃놀이를 터뜨린다면?! 교문을 막 빠져 나가려던 친구들도 발길음을 멈추고 화려한 불꽃놀이에 흠뻑 취할 것이다.
불꽃놀이 사용은 반드시 관할경찰서의 허가가 필요하다. (총포, 도검, 화약류등 단속법 제18조, 제2조, 시행령 제23조)
불꽃놀이 폭죽을 세트로도, 낱개로 모두 구입할 수 있는 곳 '화이어월드'를 소개한다. 1,500원부터 최고 1만원까지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다. 인터넷으로 주문이 가능하며 2만 원 이상 주문 시 배송은 무료이다.
문의 : 02-576-2999/ www.fireworld.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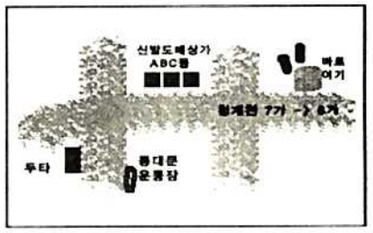
3. 대동제에는 어떤 음악을 틀어야 하나?

대동제에 필요한 음악은 특별한 순서는 기차놀이와 짝춤에는 곡을 선정해 가야하고 그 외는 요즘 유행하는 신나는 노래가 있으면 된다.

기차놀이 노래 : "기찻길 옆 오막살이", "장난감 기차"
짝 춤 노래 : 플라워의 "축제", 쿨의 "해석남녀", 레이지본의 "사랑하고 싶어" + α
그 외 순서 : 요즘 유행하는 신나는 노래면 다 좋음

짝춤 노래로는 보통 속도의 짝춤을 출수 있는 플라워의 "축제" 빠른 노래로 쿨의 "해석남녀" 매우 빠른 노래로 레이지 본의 "사랑하고 싶어"라는 노래가 있으며 이외에 많은 노래들이 있을 것이다. 각 학교 학생회에서 4/4박자 노래라면 찾아서 짝춤과 맞춰보고 선정 해 볼 수도 있다.

4. 새끼줄, 한지 구입 방법 및 가격



새끼줄 - 알록달록 소원지에 소원을 쓰고 전통 짚 푸라기 새끼줄에 엮으면 정말로 소원이 이루어 질것만 같다. 전통 지푸라기 새끼줄 어디서 사야하지?
청계천 7가에서 8가 사이에 가다보면 이 새끼줄을 파는 상가가 나온다. 정 못 찾겠으면 주변 상가에 들어가서 "여기 새끼줄 파는 곳이 어디에요"라고 물으면 친절히 알려주신다.(약도참조)
한 묶음에 100m이며 가격은 7,000원이다. 한 묶음 사면 실컷 쓰고 남는다.

한지 - 을지로 3가와 4가 사이 을지로 시장이 있다. 이 쪽으로 가면 시중가보다 더욱 저렴하게 많은 양을 구입 할 수 있다.
문의 : 02-796-2278/ 교통편 : 버스 57번 청계천 7가 정류장 하차

5. 섭외 가능한 풍물패

현재 희망과 함께하는 풍물 동아리가 있어 문의를 하면 풍물 동아리 섭외를 할 수 있고 동아리를 연결 해 주지만 학생회가 직접 통화를 해서 학교 상황에 맞게 상의해야 한다.

[홍 보]

(1) 축제에서의 홍보의 역할과 중요성

홍보 없는 축제는 가능할까? 우리끼리만의 축제를 원한다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를 만들고 싶다면 홍보는 필수이다. 친구들과 놀지도 못하고, 때로는 밤을 새기도 하고 학원도 빠져가며 열심히 준비한 축제인데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픈 것이 모두의 바람이다. 또한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학생회 간부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야 할 책임도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홍보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비해 실제 홍보는 바쁜 준비과정에서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냥 막연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밀리면 대충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먼저, 축제에서 홍보의 역할을 살펴보며 그 중요성을 알아보자.

1. 가장 기본적으로는 축제를 잘 알려내고 참여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한다.

홍보를 잘 하면 학생들이 축제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올해 축제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준비하는 사람들만큼 알 수가 있다. 이렇듯 홍보의 과정 자체가 학생들과 소통의 과정이 된다. 학생회 활동이 '학생회만의' 활동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축제를 치르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학생회만의' 축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홍보를 잘 해야 하는 것이다. 직접 책임지고 만들어가는 것은 학생회지만 학생들도 소통하고 있는 느낌, 그 과정에 함께 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때 외면받지 않는 축제를 할 수가 있다.

홍보를 통해서 축제의 전 과정을 학생들에게 잘 알려낼 수 있다면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도 더 쉬울 것이다. 학생들의 발길을 끌고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 축제의 내용을 채우는 것만큼 중요한 홍보의 역할이라고 하겠다.

2. 학생들과 함께 하는 축제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학생들에게 잘 알려내는 것에서 연장되는 내용이다. 홍보가 포스터를 만들고 붙이는 정도라고 생각하는 학생회라면 어떻게 홍보를 하는 것이 학생들과 함께 하는 축제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지금의 중고등학교 축제가 학생들에게 외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이 두 번째 역할을 도외시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에게 잘 알려주고, 함께 해보자고 손을 내미는 것이 홍보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고 참여 [illegible]조함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정말 참여하고 싶게끔 하는 홍보를 해야 한다.

[illegible]을 통해서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홍보의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 [illegible]축제를 만들어갈 수도 있다. 일방적인 홍보가 아니라 피드백하는 과정을 갖는다면 축제의 내용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함께 만드는 축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3. 축제 분위기를 한껏 만들어 축제의 준비과정 또한 축제처럼 만드는 역할을 한다.

축제는 1년의 학생자치활동 중에서 가장 빛나는 활동이다. 축제 때문에 공부를 못하고, 정신이 산만해져서 빨리 끝내야 할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의 자치활동이기 때문에 그 준비과정 또한 소중하고 준비과정까지 축제처럼 만들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홍보를 통해서 이런 것이 가능하다. 일방적으로 학생회의 입장에서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축제를 준비하는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홍보를 만들어 학교는 이미 축제를 치르고 있는 분위기로 만든다면 학생자치활동이 꽃피는 학교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2) 현재 중고등학교의 축제 홍보

다른 학교는 축제 홍보를 어떻게 할까 궁금할 것이다. 그러나 거의 모든 학교가 비슷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홍보할 때의 준비나 기세가 다르긴 하지만 방법은 새로운 것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가. 교내 홍보의 사례

1. 교내 방송

2. 교내에 포스터 붙이기, 각 반에 팜플렛 전달

3. CF패러디 영상 상영

나. 다른 학교 홍보의 사례

1. 다른 학교에 포스터 붙이기

2. 학교 앞에 찾아가 홍보하기

단순히 포스터를 붙이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등교시간이나 하교시간에 집단적으로 교문 앞에서 홍보를 한다. 홍보의 방법으로는 다 같이 구호를 외친다거나 축제에 참여하라는 멘트를 외치기도 한다. 다른 학교와 차별을 두기 위해서 노래를 부른다거나 춤을 추거나 절을 하는 학교들도 있다.

3. 인터넷을 통한 홍보

인터넷 까페나 게시판을 통해 홍보를 하는 방법이다. 텍스트로만 홍보하기도 하고, 그림이 들어간 웹홍보물을 만들기도 하고, 플래시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 학교도 있다.

(3) 홍보가 살아야 축제가 산다

가. 홍보를 살리기 위하여 먼저 변해야 할 것

정말 참여하게 만들고 싶고, 발길을 끄는 홍보를 위해서는 새롭게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홍보의 전환이 올 수 있을 것이다.

1. 홍보를 기술적 측면이나 방법적 측면으로만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축제를 홍보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고민되는 것이 '포스터는 어떻게 만들지? 우리 학생회에는 포토샵같은 거 할 줄 아는 애가 없는데..','포스터랑 팜플렛 제작하는데 얼마나 들까?','홍보하는데 사람 많이 오는 방법은 없나?' 등등일 것이다. 홍보를 이렇게 접근한다면 한없이 어렵고 지치는 실무밖에 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 것인지, 축제의 내용을 잘 담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서부터 출발해야 홍보가 즐거워지고 활력이 생긴다.

2. 축제를 학생들과 함께 하겠다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의 축제 홍보를 살펴보면 포스터와 팜플렛에 의존하여 다른 학교에 홍보를 다니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더 많은 다른 학교 학생들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생각, 더불어 우리 학교 학생들의 참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식의 반영이다. 우리학교 학생들은 원래 참여하지 않는다는 생각, 외부손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홍보는 나올 수가 없다. 학생회, 동아리, '그들만의 축제'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제 학생들에게 눈을 돌리자. 학생들이 주인인 축제를 만들기 위한 홍보를 고민하자.

3. 홍보를 통해 참여시키겠다는 것보다는 홍보 그 자체를 함께 하는 과정으로 하자.

홍보를 통해서 많이 참여시키겠다는 생각에는 '준비하는 것은 우리, 참여하는 것은 다른 학생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있다. 이것은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학생회가 주가 되고 참여하는 학생들은 객이 되게 한다. 이 축제 자체의 주인이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라는 생각의 전환을 가져온다면 모두가 주인인 축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일방적으로 우리가 준비한 축제에 와서 즐겼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홍보가 아니라 우리 함께 축제를 만들어보자는 내용의 홍보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나. 축제 홍보는 이렇게 하자

홍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다면 이제 홍보를 어떻게 해볼지 이야기해보자. 되는대로 막 하는 홍보가 아니라 계획과 준비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홍보를 해보자.

1. 홍보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체계적인 홍보를 하자.

이제 주먹구구식 홍보는 탈피하자. 되는대로 이것저것 해보거나 매년 똑같이 포스터만 붙이러 다닐 것이 아니라 미리 미리 준비해서 체계적인 홍보를 해보자. 이것은 새로운 아이디어 한, 두개 정도 시도하는 것과는 다르다. 홍보도 기획이 필요한 것이다.

(가) 홍보담당자 두기 : 축제 홍보의 준비부터 실제 홍보까지 홍보팀 회의를 진행하고, 홍보를 추진할 한명의 담당자를 둔다. 학생회장이 축제 전체를 기획하는데서의 담당자이지만 홍보라는 세부분야까지 일일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책임지고 진행할 한명의 담당자가 필요하다.

(나) 목표 세우기 : 작년 축제를 평가하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은 얼마만큼 참여했으면 좋겠다, 다른 학교 친구들이 얼마만큼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구체적 목표를 세우자. 목표가 없다면 지금 홍보가 잘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점검이 되지 않는다.

(다) 구체적 전략 세우기 : 올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홍보방법을 짠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홍보방법들이 나올 수 있다. 홍보 전략을 짜는데 있어서는 무조건 많은 방법을 내온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목표에 맞는 확실한 홍보방법들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 홍보방법에 따른 조사와 인원배치, 축제 프로그램의 특징 찾아내기
: 포스터나 팜플렛에 들어갈 문구를 쓰기 위해 요즘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유행하는 말들을 조사한다던지, 주변에 포스터 붙일 학교들을 조사하는 것처럼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포스터 디자인을 할 사람, 학교를 알아볼 사람, 기발한 문구를 짤 사람 등 역할을 맡고 회의를 통해 준비한 것들을 결정한다. 또, 홍보할 축제 프로그램의 특성을 조사해 홍보에 반영해야 한다.

(마) 실제 홍보에서의 목표설정과 인원배치 : 포스터는 주변 몇 학교에 붙이겠다, 인터넷 까페에는 어디어디에 올리겠다 등등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행할 사람을 나눈다.

(바) 평가 : 홍보는 축제 전에 끝나고, 성공했는지의 여부도 아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축제 프로그램을 평가할 때 홍보는 제대로 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정확하게 평가할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 축제에 반영될 수 있게 평가를 잘 하자.

2. 홍보를 접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하자.

축제를 홍보하는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축제에 참여하는 것이다. 즉, 축제홍보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축제로 오게 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지금까지처럼 '이렇게 하면 애들이 좋아하겠지~', '난 이게 좋다~', '이 방법이 편하니까~'라는 식으로 홍보를 하는 것은 분명 아니다. 내가 봤을 때 효과 있어 보이는 것, 맘에 드는 것,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등등 홍보를 하는 나 또는 우리 중심의 사고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그동안 했던 대로 하나의 일거리로 여기며 하는 것은 홍보가 실패하는 원인이다.

홍보를 접하는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은 뭘까, 이 방법이 친구들의 마음을 끌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그 방법이 아무리 귀찮고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홍보를 접하는 친구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라면 해야 한다.

> 예) 우리 중심의 홍보들
> 1. 포스터를 보기 좋은 장소보다 붙이기 쉬운 장소에 붙이고 온다.
> 2. 포스터나 팜플렛에 문구를 넣을 때 그동안 써왔던대로 혹은 내가 재미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쓴다. 혹은 딱딱한 설명식 문구를 쓴다.
> 3. 보는 사람이 오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추상적인 포스터 디자인

3. 동아리와 함께 하자.

축제를 준비하는 마음은 동아리나 학생회나 같다. 함께 하면 인원도 많아지고 창조적인 방법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축제의 파트너인 동아리를 홍보의 파트너로 함께 해서 다른 학교 홍보를 갈 때도 기세를 보여줄 수 있고, 교내 홍보를 할 때도 학생들 깊숙이 들어가서 홍보를 할 수가 있게 될 것이다.

4. 학생들과 함께 하자.

학생들에게 홍보하는 것인데 어떻게 함께 홍보를 할 지 의문이 들 수도 있다. 지금까지 많이 이야기했지만, 축제의 주인이 학생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아내야 한다.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도 학교의 명물로 홍보대사를 뽑는다던지, 축제 자봉단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홍보를 함께 할 수 있게 한다던지 학생들 스스로 홍보를 할 수 있게 한다면 분명 성공하는 축제가 될 것이다.

5. 진부한 생각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감각으로 홍보를 하자.

홍보하면 떠오르는 것은 포스터와 팜플렛. 빠르게 변하는 학생들의 감각을 따라가기에는 포스터와 팜플렛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이 감각을 따라갈 수 있는 홍보방법을 창조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예로 요즘 성공하고 있는 새로운 홍보방법은 영상을 활용한 홍보다. 재미있고, 감각적으로 학생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반응이 아주 좋다. 이것은 단순히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기보다는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학생들의 입장에 철저히 서게 되는 과정이다.

6. 내용은 부실한데 그럴싸하게 포장할 고민을 하지말고, 최대한 내용성을 살리는 홍보를 하자.

홍보를 접하는 사람들도 과대포장은 알 수 있다. 또, 겉만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축제에 왔다가도 부실한 축제 내용을 본다면 다음 해에는 절대 오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오히려 악영향을 주는 것이다. 일단 축제의 내용성을 최대한 담기 위해 노력하고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잘 표현할 수 있는 홍보를 할 수 있어야겠다.

(4) 새롭게 제안하는 축제홍보

가. 학생들과 함께 하기 위한 교내 홍보

1. 축제 참여에 대한 인식을 바꾸자

교내 홍보에서 중요한 점은 학생들이 여태까지 축제에 참여한 경험이 없고, 자기 학교 축제에 참여한다는 생각 자체를 안한다는 것이다. 다른 학교 축제는 재밌으면 가볼까하고 생각하지만 자기 학교 축제는 재미를 떠나서 아예 생각조차 않는다. 당연히 집에 가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새롭고 톡톡튀기만 하는 홍보 이상으로 학생들의 축제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2. 설문조사를 하자

학생들이 축제에 왜 참여하기 싫은지, 어떤 축제라면 참여하고 싶은지를 미리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자. 그 안에서 홍보멘트나 컨셉 등이 정해질 수 있다.

(설문조사와 그 적용의 예)

○○제 준비 설문조사

°

˙

4. 작년 축제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① 참여할 프로그램이 없었다.
② 학생회와 동아리만 준비했다.
③ 강제로 축제관람을 시켜서 참여하기가 싫었다.
④ 축제에서 뭘 하는지 몰랐다.

⑤ 기타 (　　)

5. ○○제의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으신가요? (복수응답 가능)
① 먹거리 장터
② 이벤트 마당
③ 반 까페
④ 대동제
⑤ 가요제
⑥ 동아리 공연마당
⑦ ○○파워, 가슴을 열어라!
⑧ 생겼으면 하는 코너 (　　)

○○학교 학생회

3. 학교를 축제 분위기로

'우리 학교 축제가 다가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축제가 다가오는 것뿐만 아니라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중요하다.

▶ 화장실에 선전물 붙이기
▶ 복도에 선전물 붙이기
▶ 버튼이나 뱃지 달고 다니기

※ 어떤 선전물을 만들 것인가 : 포스터나 팜플렛 등 하던 것만 생각하지 말고,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생각하자. 스티커, 엽서, 작은 모형, 카드 등 다양한 것이 있다.

4. 교내 홍보용 포스터를 만들자

인쇄를 맡기는 한 가지 종류의 포스터를 가지고는 다른 학교 홍보를 하자. 우리 학교는 우리 학교에 맞는 내용으로 포스터를 만들자. 인쇄해서 배포하는 포스터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목소리가 들어가 있지는 않다. 학생들에게 직접 참여하라는 메시지를 던지자. 대량제작을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인쇄를 맡기지 않아도 된다.

▶ 디자인 : 영화포스터 패러디, 공모를 통한 선정, 짧은 컷 만화로 만들기 등

5. 팜플렛을 보고 싶게 만들자

딱딱한 멘트와 지루한 디자인을 탈피하자. 팜플렛은 보고서가 아니라 축제 내용을 가장 확실하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

▶ 개그나 유행어를 이용한 멘트 짜기
▶ 눈에 확 들어오는 디자인 (그림, 공간, 폰트의 활용)
▶ 체육 대회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모두 넣자

6. 각종 선전을 하자

□ 반선전 : 직접 반에 들어가 축제의 프로그램을 알리고 참여를 호소한다. 몇 명이 초라하게 들어가서 지루한 말을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들어가서 축제분위기를 맘껏 심어놓고 오자.

1〉 피켓 등 각종 선전물을 준비하자.

2〉 친구들이 호응할 수 있는 구호를 준비하자.

(구호의 예)
"○○제에 참여하는 정도의 쎈스!!"
"좋아! ○○제에 가는거야!"

3〉 말로 하는 설명 뿐 아니라 촌극, 노가바, 율동 등 재밌는 방법을 활용하자.

(새우깡 노가바의 예)
발이 가요 발이 가
○○제에 발이 가요
가요제 대동제 너무나 재밌어
이벤트에 참여해 상~품도 받아가요
○○제로 오세요
10월 15일

4〉 그 반에서 적극 호응해 줄 수 있는 친구를 미리 몇 명 배치해놓는다.
5〉 최대한 짧은 시간에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나온다.

□ 교문 앞 선전 : 축제 이틀이나 하루 전에는 축제라는 것을 알리며 참여를 호소하는 것도 필요하다.
1〉 피켓, 현수막 등 선전물을 준비하자.
2〉 확실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짧은 구호를 준비하자.
3〉 하나의 복장으로 통일하자.

□ 기타 장소 선전 : 식당, 매점 등 친구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자.

7. 방송을 통한 홍보를 하자

□ 아침, 점심 등 수시로 방송하자.
□ 짧고 굵은 홍보멘트를 준비하자.
□ 설명 뿐 아니라 짧은 방송극을 통해서 홍보할 수도 있다.
□ 일반학생이 나와 축제 같이 참여하자는 준비된 멘트를 해보자.
□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뉴스 형식으로 흥미를 유발하며 알려줄 수도 있다.

8. CF를 제작해서 상영하자

활력 프로젝트 여는마당에서 CF 패러디를 잘 하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이 CF를 축제 홍보에 이용하자.

▶ 인기 CF들을 조사하자.
▶ 학생회 뿐 아니라 인기있는 일반학생들을 주인공으로 출연시키자.
▶ 패러디 분 아니라 직접 창작해서 제작할 수도 있다.
▶ 여러 편을 찍어서 축제 전까지 한편씩 상영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자.

9. 마스코트를 정하자

학생들이 봤을 때 좋아하고 호응할 만한 축제의 마스코트를 정하자. 각종 선전물에 마스코트를 넣어서 기억하기 쉽고 재미나게 만들자.

10. 입소문을 내자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해 홍보하는 것과 더불어 학생회 간부들이 직접 학생들 속에서 여론을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학생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며 분위기를 만들어가자.

▶ 공부시간에 쪽지보내기
▶ 점심시간에 축제에 대한 화두로 대화하기

11. 잘 보이는 곳에 현수막을 달자

축제 준비기간 내내 눈에 잘 띄는 곳에 현수막을 달자. 오래 봐도 지루하지 않을 재미있는 문구로 만들자. 그래서 지나가면서 한번씩 보고 웃을 수 있게 만들자. 이 때 현수막은 인쇄를 하지 않아도 된다. 천을 사서 붓으로 글씨를 직접 쓰고 그림도 그릴 수 있다.

12. 학교 사이트와 학교 까페에 홍보물을 올리자

프로그램 순서만 나와 있는 보기 지루한 홍보물이 아니라 잘 만든 한 장짜리 웹페이지로 홍보하자.

▶ 학교 사이트에 올려 놓는다.
▶ 학교 동아리, 반, 우리 학교 학생이 만든 가페들을 찾아 올려 놓는다.

13. 운동장을 거대한 홍보전광판으로 만들자

건물에서 운동장을 내려다 보면 운동장 전체가 한눈에 들어온다. 그 운동장에 물로 글씨 등을 써서 축제 홍보를 할 수 있다.

▶ 매 쉬는 시간마다 한글자씩 바꿔가며 쓴다.
▶ 점심시간에 짧은 문구를 써 놓는다.

14. 전교생에게 이메일, 문자메시지 보내기

각 반의 회장을 통해서 전교생의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조사한다. 그리고 잘 만들어진 한 장짜리 웹 페이지로 메일을 보내고, 재밌는 멘트로 전체문자를 보내자. 정말 학생들에게 다가갔다면 답메일이나 답문이 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15. MSN 대화명 바꾸기 운동

수시로 바꿀 수 있는 MSN대화명을 축제에 참여하자는 내용으로 바꾸는 운동을 벌이자. 미선이, 효순이 사건 때 삽시간에 퍼져나갔던 삼베달기 운동처럼. 잘 짜여진 짧은 대화명을 학생회가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겠다.

16. 일일 축제뉴스를 게시하자

축제준비가 절정에 들어가서 매일매일 상황이 바뀌는 때부터 (약 축제 열흘 전 정도) 매일 매일 진행되는 축제 상황을 재밌게 매일뉴스 형식으로 만들어 학생들이 잘 보는 곳에 게시하자. 주의할 것은 대자보 한 장에 글씨도 대충 쓴 허접한 게시물은 안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엔 오히려 역효과만 나게 된다. 색지도 쓰고, 글씨도 깨끗하게 눈에 확 띄게 꾸며서 학생들이 보기 좋게 만들어야 한다.

17. 홍보 자체를 이벤트로 하자

홍보도 재밌게 이벤트로 할 수도 있다. 점심시간에 학교를 돌아다니며 퀴즈를 내서 맞추면 먹거리 상품권을 준다던지, 티켓을 줘서 이 티켓을 가지고 몇 개 이상 동아리 관람을 하면 먹거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꼭 축제에 참여하게 만드는 무언가를 던져주는 것도 확실한 홍보방법이겠다.

나. 인기만빵 축제를 만들기 위한 다른 학교 홍보

1. 다른 학교 앞 홍보는 이렇게 해보자

○ 많은 인원으로 기세있게 하자

다른 학교 교문 앞에서 무언가를 진행하려면 어느 정도 용기가 필요하다. 한명 혹은 두명이 간다면 학생들의 뜨거운 시선을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무언가를 했을 때의 기세란 관중을 압도할 수 있을 것이다.

○ '안녕하십니까!…' 형식을 탈피해보자

학생회가 기세있게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는 것은 좋다.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고, 기세를 보여줄 수 있다.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축제에 많이 오세요' 라거나 '○○축제 재미있습니다'라는 뻔한 멘트는 하지 말자. 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멘트가 필요하다. 뭘까 하고 호기심에 눈을 돌린 학생들이 우와 가고 싶다라고 생각할만한 톡톡 튀는 멘트를 짜보자.

○ 복장을 통일하자

교복을 입고 여러명이 선전을 한다면 기본 복장이 통일될 것이다. 여기에 손수건을 목에 건다던지, 학생회 티셔츠를 입는다던지, 머리띠를 두른다던지 하는 식으로 봤을 때 폼 나게 복장을 통일하자. 그것만으로 충분히 시선을 끌기 때문에 선전이 한결 수월해진다.

○ 선전물을 준비하자

그냥 말로만 하는 홍보는 효과가 약하다.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말로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선전물을 잘 준비해야 한다. 축제의 내용을 담아서 꼭 오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선전물을 잘 만들어보자. 피켓을 만들 수도 있고, 현수막을 만들 수도 있다. 팜플렛을 나눠줄 수도 있고, 작은 엽서나 카드를 나눠 줄 수도 있다.

○ 사전에 학교의 등하교 시간을 조사하고 학생회와 연락하자

학교마다 등하교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조사하고 가지 않으면 기다리게 되거나 허탕치는 경우가 생긴다. 그리고 미리 학생회와 연락을 해서 찾아간김에 선전전과 동시에 학생회를 통한 홍보도 할 수 있게 하자.

○ 연습을 철저히 하고 가자

이런 것들을 해보자라고 내용만 정하고 가면 막상 홍보를 시작할 때 다 제각각일 것이다. 누구는 멘트를 잊어버리고, 누구는 민망해할 것이다. 미리 연습을 하자. 충분히 몸에 익을 정도로 연습을 하고 가지 않으면 허둥대고 당황하는 여러분을 학생들은 무심하게 지나치며 저 학교 축제 별로일 거야라고 생각할 것이다.

○ 멘트 이상의 것을 준비하자

멘트만 하기엔 목도 아프고, 관심끌기에 한계가 있다. D고에서 하는 것처럼 노래나 춤을 보여줄 수도 있고, 더 많은 뭔가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걸 보는 학생들은 재밌어하며 축제에 오고 싶어 할 것이다.

○ 동아리와 함께 홍보를 나가자

동아리는 문예적 역량이 있다. 풍물, 춤, 노래, 운동 등 자신의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이런 동아리와 함께 홍보를 간다면 학생들의 시선을 확실하게 끌고 오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할 것이다.

2. 다른 학교 홍보도 이벤트식으로

교내 홍보에서 이벤트식으로 홍보를 제안했듯이 다른학교 홍보도 마찬가지다. 다른 학교는 더 호응이 클 수 있다. 그 학교 앞에 가서 퀴즈를 내고 먹거리 상품권을 준다던지 하면 일단 받은 학생들은 축제에 오고 싶어질 것이다 그 친구가 못오더라도 다른 친구에게 상품권을 넘겨서 더 많은 학생들이 올 수 있을 것이다. 먹거리 상품권이 상업적이고 예산상 문제가 있다면 다른 참여를 유도하는 것으로 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3. 인라인스케이트 홍보단으로 홍보에 새바람을

인라인스케이트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깃발을 꽂고 일렬로 늘어서서 다른 학교 앞을 질주하면 학생들의 탄성을 자아낼 것이다. 현실적으로 학생회가 소화하기에 무리가 있을 것이므로 인라인 홍보단을 모집하자. 모집된 학생들과 의도나 중요성을 잘 설명해주고, 충분한 연습 후 실행하면 멋진 축제 홍보를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강당 공연에 다른 학교 축제 홍보를 넣자

축제에 꼭 오는 사람들이 바로 다른 학교 학생회들이다. 학생회 본부석을 찾아 인사를 하기도 하고, 우리 학교 축제에 적용할 좋은 것들이 있나 둘러보고 가기도 한다. 이런 학생회들은 교류를 원하고 있고, 자기 학교 축제홍보도 할 수 있다면 좋아할 것이다. 이들에게 축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강당공연 때 1분씩 축제홍보시간을 준다라는 내용을 홍보한다면 보다 많은 학생회가 축제에 찾아올 것이다. 축제에 모인 많은 학생들에게 홍보할 수 있다는데 마다하는 학생회가 어디 있겠는가.

(5) 축제 홍보와 관련한 각종 정보들

가. 홍보 인쇄물 제작

나. 홍보 영상 제작법

1. CF 패러디의 순서

CF선정 : 패러디가 가능한 재미있는 최신 CF를 선정한다.

⇓

컷(Cut) 수의 파악 : CF가 몇 개의 컷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파악한다. 컷 수란 화면이 끊어지는 개수를 말한다.

⇓

내용 패러디 : 컷마다 새롭게 내용을 패러디한다. 장면은 그대로 따라하고 대사를 패러디한다.

⇓

스토리보드 만들기 : 기존 CF의 그림을 그대로 쓸 수도 있고, 직접 그릴 수도 있다. 장면과 대사를 확실히 기록한다.

⇓

촬영 : CF의 배경과 비슷한 곳에서 최대한 비슷하게 촬영한다. 이 때 학교에서 유명한 친구들을 출연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녹음 : CF패러디는 효과음과 대사가 정확히 전달되는 것이 생명이므로, 촬영 후에 녹음을 해야 한다. 촬영할 때의 현장음은 쓰이지 않는다.

편집 : 주변에 디지털 편집을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편집이 막막하다면 희망의 학생회센터로 문의하자. 촬영이 부실해도 편집을 통해 역전할 수 있는 것이 CF패러디다. 효과음과 영상효과를 잘 넣자.

2. 스토리보드 예시안

(기존 CF - 서울우유 CF)

아이 : 아앙~~~~
지?
엄마 : 엄마가 몇 번 말했어?
거짓말하는 사람 엄마딸
아니라고 했지?

엄마 : 이제 엄마딸 할꺼

아이 : 엄마딸 하고 싶어~엉엉

나레이션 :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나레이션 : 서울우유

3. 다양한 CF를 볼 수 있는 사이트

TVCF - www.tvcf.co.kr / NGTV - www.ngtv.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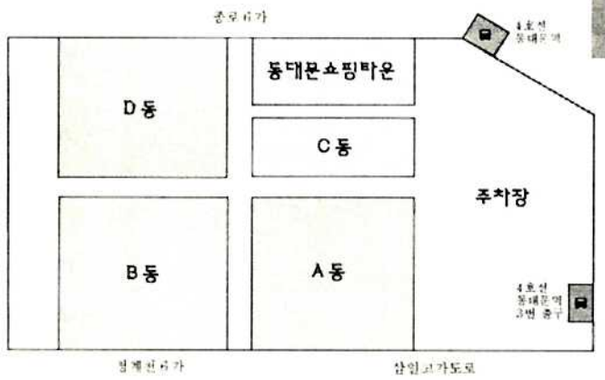
다. 홍보 물품 제작

1. 플랭카드 등을 쓰는데 필요한 천을 사는 방법

동대문종합시장을 가면 플랭카드를 쓸 수 있는 천을 살 수가 있다. 동대문 종합시장 안의 원단 가게를 가면 구할 수가 있다. 다양한 원단을 파는데 이 중 '다후다천'을 사면된다. 최소 1마씩(가로, 세로 90cm) 끊어 팔며, 가게에 따라 팔고 남은 자투리 천을 싸게 파는 곳도 있다. 가격은 500~700원 선이다.

동대문종합시장

동대문종합시장



2. 각종 문구류 싸게 사는 방법

동대문구 창신동에 자리잡은 '동대문 문구 시장'에 가면 문구류를 싸게 살 수 있다. 문구 도매상 30여 곳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국내 최대의 문구 시장이다. 모든 매장에서 일반 소매 가격보다 30~40% 정도 할인받을 수 있다. 하지만 품목에 따라 매장 간 가격차가 있다. 많은 학생회가 축제 때 이곳을 이용한다.

희망 학생회 센터 소개

전국의 모든 중, 고등학교에는 학생회가 있습니다.

매년 학생회가 구성되어 맡겨진 임기동안 학생회 활동을 하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학생회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걸음 치는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학생회장, 학생회임원이 되어도 학생회활동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제대로 가르쳐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냥 하라고만 할뿐입니다.

인터넷, 도서관을 가서 학생회관련 자료와 책을 찾아보지만 그것도 허사입니다.
아무리 검색하여도 중, 고등학교 학생회 간부들의 고민을 풀어줄 자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중, 고등학교의 학생회의 처지 또한 허약하기 그지없습니다. 학생회의 권한과 지위가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 학생회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에서 '학생회센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중, 고등학교 학생회 간부들의 막막함을 해소해 주기 위해 여러 가지 교육과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 고등학교 학생회의 권한과 지위가 상승될 수 있도록 학생회 운동을 추동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학생회를 만들고 싶은 학생회 친구들!
자치활동을 활발히 펼치도록 도와주고 싶은 선생님들!

저희 학생회센터와 함께 하여 진정한 학생회를 만들어가요!

■ 학생회교육

■ 학생회상담

■ 여름방학 프로그램

- **학생회 프로젝트**

■ 겨울방학 프로그램

- **학생회 연합 M.T**

■ 희망 학생회 회원 활동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어려움, 활동사례를 나누고, 타 학교 학생회와 교류하는 모임으로 청소년운영진에 의해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모임이며 함께 활동하고 싶은 친구들은 언제든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문의 : 02-796-2278 / www.stu21.net